

피아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web.yonsei.ac.kr/ysfem
woolinx@yonsei.ac.kr



춤추는 
2009 3호

<특집> 이성애주의의 한복판에서

피아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02 이성애주의의 한복판에서 - 우리 귀여하지 않을까요?

특집: 이성애주의의 한복판에서

- 06 I'm questioning 10 상상체성을 고민하면서도 내 안에 있던 호모토피아
12 나의 기억과 우리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짧은 글
16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라고 할까 하는 어의상실 패하승천 이성애지문 -
18 결혼, 뒤집어보기 21 이성애중성주의로 존속되는 공동체, 이성애중성주의를 존속시키는 공동체
24 군대가 싫은 성소수자의 넋두리 26 이성애광화국 취업해서 : 귀여한 노동권을 찾아서
34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사실은 양면기

뜯어먹기 좋은 빵

- 36 상경논총 "성적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본격 깨는 글
43 나는 송도랜드 정말로 싫습니다

즐거움의 재구성

- 51 귀여 리베레이도론 55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를 보고 나서^^

여름 속에 <알상, 올림>

- 58 <알상, 올림>, 이렇게 살았어요
60 송도갯벌과의 만남 - 예코해마니즘 운동팀의 송도갯벌생태 활동기
63 여성노동자를 고민하는 팀 활동 후기
64 2009 여름방학 여성주의 세미나 후기 - 냉상남실 오고가는 후기
68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69 송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70 두근 두근 11회 여성제 : 나의 성은 x다! 72 후기





우리 퀴어하지 않을까요?

이성애자로 태어나
이성애자로 살다
이성애자로 죽는
완벽한 세상

전제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을. 티비에서도 가끔 봤고 퀴어영화도 봤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건 몇몇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다. 자신은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 혹은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이고,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애자로 태어나서 이성애자로 살다 이성애자로 죽는 완벽한 세상? 그런 건 없다. 단지 이성애주의가 있을 뿐이다. '이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성애주의가 있을 뿐이고, '이성애자로 사는 것' 이외의 다른 삶을 상상을 못하게 만드는 이성애주의가 있을 뿐이다. 여성/남성이라는 성별이분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성애가 당연하고 유일한 성애라고 여기게 만들고, 이성

누군가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 태어나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사람은 무릇 그렇게 생겨먹은 거라고 말한다.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애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성적정체성, 성적 실천에 대해 '비정상'이라는 잣대를 마음대로 갖다 붙여 차별하고 배제하고, 이성애자만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성애주의가 있을 뿐이다. 이성애주의는 한 사람의, 혹은 모든 사람의 삶을 움켜잡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뿐이다.'라는 말을 쓰기에는 마음이 찝찝하지만, 그래도 말하련다.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도록 여기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이성애주의가 있을 뿐이다.¹⁾

이성애주의가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 모든 법과 제도, 사회가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무성애자, 트랜스 젠더, 트랜스 섹슈얼, 인터섹슈얼, x y z 등등 이성애주의에 포섭되지 않은 모든 정체성들에 대한 억압 또한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사회가 그렇다. 이성애자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사회와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 이유 없는 혐오를 받거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애주의가 '용인'하지 않는 성적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성애주의에 의해 위협받는다. 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남성이 아닌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퇴출당하기 십상이다. 비이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웃음거리가 되거나 성폭력 등에 노출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도 많다. '정상적인' 이성애와 '비정상적인' 동성애라는 구도 속에서, 지배적인 규범으로서 이성애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혹여 '그래 그럼 그건 나 같은 이성애자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네.'라며 이 순간 또 다시 이성애와 이성애 아닌 것으로 딱 잘라 나눠버리고 타자화가 일어날까 염려된다. 이성애주의는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주의는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서 작동하며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에 절대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성별이분법은 이성애주의와 함께 작동한다. 성별 이분법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다를 수 있는 n개의 성을 단 2개의 성(남성/여성)으로 범주화하여 구분 짓고,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발명하고 그 둘 사이의 위계를 지으며 차

이성애주의는
'동성애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① '이성애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성애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이성애를 '중심', '주체'로, 비이성애를 '주변', '객체'로 위치짓는 권력과 그 권력의 부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성애주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이성애주의가 중심/주변을 나누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이성애중심주의보다 더욱 포괄적인 표현으로써 이성애주의라는 용어가 이 글에서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② '용인'이라든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누군가의 존재를 용인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도 없다. 하지만,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그러한 권력을 마치 당연한 듯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별을 생산한다. 하지만, 과연 남성은 누구이며 여성은 누구인가. 그것이 단지 태어나자마자 성기의 모양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가? 페니스가 있으면 남성, 페니스가 없으면 여성이라는 '절대적'인 듯이 여겨지는 구분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단지 신체 기관 중 하나인 성기의 모양으로 한 개인의 습관, 행동, 사회적 위치, 정체성까지 결정된다고 말하는 듯한 성별이분법은 허구이며, 성기가 단 두 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이 확고해질수록 그 내부의 수많은 차이들은 삭제되고, 둘 사이의 위계와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화된다. 이성애주의는 이러한 성별 이분법의 근간에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작동하며 그 규범을 더욱 강화시킨다.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그렇게 앉으면 안된다.'와 같은 말은 여성성/남성성 수행에서 이성애주의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또한 누군가가 여성성/남성성에서 이탈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것에서도 그 관계가 드러난다. 헤테로 여성성/헤테로 남성성이 지금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성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애주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성애자'라는 범주에 대해서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비이성에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은 지배적인 성별 규범, 성적 실천과 자신의 경험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이성애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자신의 경험들을 받아들이며, 혹은 경험들이 끊임없이 정합해나감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성에 정체성은? 이성애주의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이성애자로 전제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해나가지 않아도 이성애자로 규정되고 이성애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다. 이는, 이성에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한 듯이 보이지만,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 이성애주의에 포섭된 상태임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이성애 정체성이 기획된 것이며, 허구일지 모른다.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가며 끊임없이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성애주의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시킨 채 모두를 '이성애자'로 전제하며, 이성애자로 살아가게끔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이성애주의는 단지 이성애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LGBTIQ 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두는 이성애주의의 권력망 속에서 살게 되며, 그 권력망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가 이성애주의 뒤 그런 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성애주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미 이성애주의의 권력망에 포섭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성애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할 때는 이성애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지 상상하지 못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지만, 그 때야말로 이성애주의를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닐는지 모르겠다.

당신에게 건네는
대담한 제안,
'우리 퀴어하지
않을래요?'



뚜렷한가? 언제부터 자신이 여성/남성이었는가? 흔히 말하는 '여성/남성으로서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들은 없는가? 여성을 사랑하지 않는 남성/남성을 사랑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여성이 아닌가? 아니, 애초에 남성/여성이라는 구분을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

확고한 듯이 보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듯한 이성에 정체성이 실은 어떤 권력이 작동하여 형성되었는지, 정말 그렇게 확고한 것인지 의심해보자. 모든 인간은 이성애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언제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했는가? 이성애에만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이성애주의는 어떻게 이성애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다른 성적정체성들을 억압하는가? 이성애주의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너무도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들을 의심해나가기.

이성애주의를 '전제'로써 받아들인다면 남성/여성이라는 구분도, 이성애도 너무도 당연하고 완벽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것이 이성애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성애주의는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마저 이성애주의에 알맞게끔 삭제하고 변형시키며 작동하므로, 그 전제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퀴어해지자'는 제안은, 그 '전제'를 뒤집어 열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전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때때로, 혹은 항상 그것을 전제로 여기게끔 하는 권력이 작동하여 만든 '결과'다.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마냥 보였던 그 이성애주의를 벗어나보고, 뒤돌아보자. 그러면 이전까지는 정말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거슨 진리'였던 것들 사이사이에 수많은 허점과 균열점들이 보이고, 자신의 경험들이 이성애주의를 벗어나 재구성되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에 빠지기를, 퀴어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 혼란과 균열을 온 몸으로 겪어내며, 퀴어해지기를 거듭하다보면, 이성애주의를 벗어나 수도, 뒤돌 수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퀴어하지 않을래요?'

● heterosexuality 혹은 heterosensual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보편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이분법일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 이성애, 이성애자, 이성에 정체성을 명명한 말이며, 흔히 헤테로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 나는 나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하려고 애썼다. '애썼다'라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애썼을까. 별 이유는 없다. 그래야 살이 편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나는 순도 100% 이성애자요'라고 이마에 써 붙이기라도 한 것 같은 사람들만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어색한 일인가. '우린 모두 이성애자'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너무나도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애니 결혼이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 속에서 난 이성애자가 아니면 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저 남들 이야기에 적당히 맞장구치며 어색하게 웃어야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그래, 역시 이노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난 이성애자가 되려고 애썼다. 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조각내어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부풀리고 해서 요리조리 끼워 맞추다보니 어떻게든 나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내 삶과 경험은 그렇게 이성애중심주의라는 틀에 알맞은 형태를 갖추고자 '의식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예전엔 몰랐었다. 내 경험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재구성되었는 줄은.



하지만 나를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기에는,
글쎄,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애정이나 성적 욕망의 형태를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에게 향하는 것으로만 한정짓는다.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애정이나 성적 욕망은 기껏해야 한때의 호기심이나 일탈 정도로 여겨지거나 비정상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기 일쑤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직접적인 강제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성애중심주의가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맞춰 살게끔 개인을 내면화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한 통제의 효과를 가진다. 이성애중심주의의 존재를 눈치 챈 이후로 나는 아마 그것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 것 같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나같이 무뎠게 살고자 애쓰는 인간에게도 너무나 제약이 많은 틀이었다. 내 경험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은 이성애중심주의의 틀 안에서는 온전히 되살아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성애자라는 단어로 나의 성적 지향과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내가 여중을 다닐 때 특히나 많이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도 나를 좋아했다. 우리는 교실에서 언제나 붙어 다니는 그런 단짝 친구는 아니었다. 그녀와 나는 내가 친했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좀 더 조심스럽고 애뜻한 관계였다. 서로 말을 많이 하거나 하진 않지만 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런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나중에 전학을 가게 됐을 때 소식이 끊기기 전까지 편지를 주고받았다. 장문의 편지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자신의 키가 조금 컸다고 자랑하는 말과 정말 보고 싶다는 말이다. 당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의 기분은 초등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애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을 때와 비슷했다. 하지만 남자애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은 것은 첫사랑의 추억으로 남은 반면, 그 친구에게 받은 편지는 아름다운 우정의 추억으로 남았다. 그녀에 대한 나의 애뜻함과 두근거림은 좀 더 특별한 우정으로 각색되었다. 아마 나처럼 동성 친구에게 느꼈던 그 설렘을 그저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동성 친구와의 유사 연애 경험은 순수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박제된 채 간직되거나 혹은 삭제되어버린다. 이런 과정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일까. 동성 친구를 좋아했거나 동성 친구에 대해 성욕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다만 이성 친구를 좋아했던 경험과는 달리 어째서 동성 친구를 좋아했던 경험은 '특별한 우정'이나 '특수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성적 호기심' 정도로 굳이 재해석되어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동성에게 느꼈던 감정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느껴야 할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랬다.

좀 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나도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떤 여자아이와의 성적 경험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레충에 사는 이웃의 조카였던 것 같은데, 같이 놀다가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야한 게임을 하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섹스를 흥내 내는 것이었는데 그 여자아이도 자세한 게임의 규칙(?)은 몰랐는지 서로 옷을 벗기는 정도로 끝났다. 그건 내가 꽤 어릴 때의 경험이지만 아직도 그 때의 호기심과 충동은 강렬한 느낌으로 남아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한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말이다. 하지만 이 경험을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설명 내가 어릴 때 한 여자아이와 야한 놀이를 했다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을 지라도 내가 그 여자아이에게 느꼈던 성적충동을 누군가에게 고백할 순 없었을 거다. 그 충동은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었기에,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이 경험을 내가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따돌고 있는 건 지금 내가 솔직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사회적으로 나는 그렇게 솔직한 인간이 아니다. 사회가 날 솔직할 수 없게 만드니까.

I'm Questioning¹⁾

내가 그저 동성에게 정서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끌렸던 개별적인 경험들의 존재 때문에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니다. 이 경험들과, 더 이상 시시콜콜 말하기 어려운 나의 섹슈얼리티를 오랫동안 고민해본 끝에, 나는 나를 더 이상 이성애자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다고 나를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글썽,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여자와 남자, 아니, 단순히 여/남으로 구분될 수 없는 어떤 인간에게서도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이끌린 적이 있다. 언젠가 한재윤의 글에서 '당신이 어떤 남자의 여성스러움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레즈비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나는 나를 도무지 어떤 확고한 성적지향으로 규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여성의 여성성²⁾에 이끌린 적도 있고, 어떤 남성의 남성성에 이끌린 적도 있었으며, 어떤 여성의 남성성이나 어떤 남성의 여성성에 이끌린 적도 있다. 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성적 지향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고, 나는 아직 나를 뭐라고 정체화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나를 비교적 유사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성적지향이 있다면

그건 아마 Questioning이라는 성적지향일 것이다. 나를 Questioning이라고 정체화하게 되자, 이성애자로 살고자 했을 때보다 좀 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 것도 사실이다.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이분법의 틀에 맞게 삭제되거나 재편되어야만 했던 경험들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됐고, 스스로 자신은 '~~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압박하게 되는 일도 줄어들었다. 언젠가는 내 스스로를 Questioning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정체화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난 Questioning인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만큼은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세상엔 이성애자만 존재하나요?/존재해야 하나요?' 아니다. 세상은 남과 여만 존재하거나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서로 만나 연애하는 그런 단순한 연애각본만 존재하는 곳이 아닌,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곳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이성애자여만 한다느니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드는 원흉일 뿐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성애중심주의는 타파되어야 한다.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답이다.

by Sidney



① Questioning은 자신의 성적지향에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며, 자신의 성적지향을 확고한, 고정불변한 그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또 다른 성적지향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Questioning이라는 성적지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Questioning으로 정체화할 수도 있다.

② 이러한 여성성/남성성의 구분 역시 생물학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 규범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질이나 특성을 여성성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기질이나 특성을 남성성으로 언급했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면서도 내 안에 있던 호모포비아

아마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부터 성정체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혼란스러웠다. 중요한 건, 그 고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건, 레즈비언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다.

고등학교 때 나의 성정체성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나의 고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들었고, 좋아하는 감정은 눌러 없애려고 했다. 공부하기 싫어서 이상한 고민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일기장에 고민을 쓸 때도, '동성애자'나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쓰지조차 못했다. '설마 내가 ㄱ*****인가?' 이런 식으로 썼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 머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자가 나오면, 그냥 그런가보다, 라고 나를 '쿨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동성애자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일리가 없었다. 그저 지극히 정상적으로 단조롭게 살고 있는 내가 동성애자일 수는 없었다. 동성애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반에 '여성스럽다'라고 불릴만한 남자애가 있었다. 애들이 지나가는 말로 '제 게이 아니야?'라고 하기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규범적인 성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이성애중심적인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뒷이야기거리로 삼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고, '정말인가? 에이 설마 진짜 게이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진짜진짜진짜 게이일리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게이가 있을 수 있겠어...우리 반 안에...' 남자가 여성스럽다고 게이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문제의식도 약간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반과 같이 '멀쩡한 공간'

에 설마 진짜로 게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컸다. 바이성애정체성은 내 '정상적인' 사고체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기한 점은, 나의 성정체성을 고민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도 그냥 생활하면서는 내가 그렇게 고민했다는 사실을 많이 잊고서 지냈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성애자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고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잊으려고 노력했고, 많은 시간은 잘 잊고 살았다는 게 지금 보면 신기하다. 나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나의 문제로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동성애자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다. 비정상인 사람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는 너무나도 다르고 눈으로도 그것이 바로 드러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성별뿐인데 말이다. 그리고 성정체성이라는 것도 다른 어느 정체성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하나로 어떤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회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매체에서 나오는 동성애자가 비정상적이고 특수하다는 이미지, 가끔 선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만 하는 동성애자에 관한 이미지들을 나도 모르게 체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약 동성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난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무서운 것이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고, 그게 알려지는 것은 더욱 더 무서웠다. 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찍힐 것이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겠지. 고등학교, 매일 매일 똑같은 아이들을 그 네모난 교실에서 봐야하는데... 그러니 나 스스로도 내 정체성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나의 고민을 말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내 안의 호모포비아를 깨고 내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난 후였다.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로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살더라. 물론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도 있고 각자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만, 하여간 살아간다. 어차피 더는 부인할 수 없기도 했고, 어느 순간 '그래, 나도 동성애자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안의 호모포비아는 잦아들고 이 호모포비아 사회가 바뀌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살만하다.

"나는 '쿨해서' 동성애자들, 뭐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도 호모포비아기가 있을 수 있다. 괜찮고 말고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동성애자들 사실은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거나, 자신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자신의 일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본적이 있나? 이 생각은 너무 무서운가? 그렇다면 먼 거처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시길."

by 나탈리

막상 여중을 다닐 적에는 내가 그 사절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 같다. 기억은 과거의 순간이지만 평생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성애중심주의라는 단어를 배우고, 정체성을 고민하면서도 그랬다. (레즈비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에 있는) 지금도 나의 기억들은 뒤흔들리며 떠올라서는 이리저리 충돌하다가 새로운 자리를 찾아 다시 천천히 내려앉고 있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이 바로 여중시절이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글은 나의 여중시절에 대한 이야기이며 8년여가 흘러서야 스스로의 글씨로 차근차근 써내려 갈 수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의 기억과 우리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짧은 글



여중에는 멋진 언니들이 있었다. 축제날이면 언제나 H.O.T.나 신화의 춤을 추곤 했던 멋진 언니들. 발볼일없는 재롱잔치같은 중학교 축제를 순식간에 고풍적 뮤직뱅크로 만들어버리던 멋진 언니들. 블랙앤화이트의 의상을 맞춰 입고 등장할 때면 '까아'하는 합성소리가 울려 퍼져, 교장실 책상 위의 커피잔마저 차르르 떨리게 만들었다는 전설 속의 멋진 언니들. 언니들이 무대에서 춤을 출 때면 모두 넋을 놓고 올려다보았으며, 언니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면 모두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이렇게 전교생이 언니들을 선망했지만, 그 중에도 특출나게 열광적인 십수명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나왔다. 결국 그 십수명은 팬클럽을 결성했고, 발렌타인 데이같은 특별한 날이면 언니들에게 편지나 초콜렛 같은 것을 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키가 큰 한 언니를 유난히 좋아했다. 워낙에 편질나게 선물을 주러 다녔던 탓에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너 혹시 레즈비언 아니냐?'라고 묻

거나 '여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 언니가 지나갈 때 괜히 나를 밀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서 장난기어린 용원을 보냈다. 그때 우리들은 멋진 언니를 보고 열광하는 것, 언니에게 떨리는 감정을 가지는 것, 그걸 표현하는 것을 딱히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모두들 그 언니들이 멋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멋진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걸 비이성에 정체성에 대한 긍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라도, 우린 그런 공기 속에서 살았다. 때면 축제가 다가오는 무렵이면 멋진 언니들이 어떤 춤을 출까를 기대하는 들뜬 공기가 온 학교에 와자지킬 때마다던 것처럼, 여중에서 그런 공기는 어색하지 않았다.

이런 공기의 강력한 외부자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선생들이었다. 선생들은 특별히 우리를 혼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바웃음을 통해 많은 것들을 띄 날려버렸다. 무슨 여자끼리 그런 걸 다 하냐며 깔깔대다가, 니가 개를 좋아한다며? 하며 품 웃음을 삼키다가, 그래 다 한때니까 열심히 해보렴 하며 큼큼거리는 식이었다. 유난히 불어 다니는 여학생들에게는 너네 사귀냐며 푸하하 웃고, 머리를 짧게 킷한 여학생에게는 너 그러니까 무슨 동성애자잖아며 농을 던졌다.

이 세상 선생들의 머릿속은 대개 이렇게 굳어있다. 그들에게 비이성에 정체성이란 자기네 학교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상상 밖의 것이다.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바로잡아 주어야 할 '비행'이고 '일탈'일 따름이다. 사실 이걸 참 많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자중학생들의 비이성에적 감정과 행동을 모두 '철부지'의 '일시적 방황'으로 박아놓으면서 안심하는 방식. 여긴 남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직 남자를 몰라서 벌이는 '착각'이라고 바웃으면서 선도하는 방식.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여자아이라면 '정상적인' 남자아이/어른과 맺어지게 되어있으므로, 너희도 여기 비정상적인 환경을 벗어나면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될 것이라는 이성애주의의 단호한 명령을 말이다. 교과서에도, 성교육에도, 학사지도에도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이성애자' 혹은 '곧 이성애자가 될' 사람들이었고 그 외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나면서 자연스레 호모포비아에 절게 되었던 것 같다. 학교의 가르침이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야, 비이성애정체성을 내 것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을 정도였으니. 그만큼 학교는 이성애주의를 가르치는 참으로 강력한 훈육기관이었다.

그런 학교생활에도 반짝이는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친한 친구들끼리 밤새 과자를 먹으며 놀던 날이었다. 동그렇게 모여앉아서 이런저런 얘길 하다가 돌아가면서 호감이 가는 여학생을 고백하게 되었다.(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자신이 끌리는 여학생을 고백하는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가 전해지면, 남몰래 헤벌레거렸던 기억이 난다.) 그 자리는 어떤 의식을 치루는 듯 고요하게 진행되었다. 한명이 어떤 사람의 이

를 꺼내어놓으면, 다들 놀라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코멘트도 달고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다음 사람이 말을 꺼내어놓으며 그렇게 천천히 흘러갔다. 사실은 이진 아름다운 자리만은 아니었다. 아웃팅의 위험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이성애자라는 잠재적이고도 기만적인 가정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진 좀 기운이 빠지는 기억이다. 하지만 기억은 한 가지 감정만 가지진 않는다. 기운이 빠지는 것과 동시에 그 때의 부드러운 공기를 기억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 공기는 다만 '저 사람은 이성애자인데 동성을 좋아한다고 하네? 우린 뭔가 해괴망측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같은 흥분과는 달랐다. 우리가 그런 원 안에는 악의 없는 호기심이나 기분 좋은 떨림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이 자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자리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도 없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이성애 아닌 상대에게 끌림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린 왜 그랬던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랬던 걸까? 왜 나는 좋아하던 여학생의 이름을 입술 밖으로 낼 때 느꼈던 그 떨리던 마음을 긴장한 탓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왜 나는 멋진 언니를 좋아하는 감정을 나의 정체성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걸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몇 가지 대답도 얻었다. 그 시절에 내가 비이성에 정체성을 내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호모포비아 때문이었고, 호모포비아 학교에서 길러졌기 때문이라고, 내 안에 호모포비아가 강고하게 자리 잡았던 기억은 사실 끔찍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기억이다. 그런데 왜 나는 여중시절의 나와, 내가 꽃아다닌 멋진 언니와, 그 언니와 나를 응원하던 내 친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떠오르는 걸까? 왜 지금에 와서 여중시절에 느꼈던 나의 감정을 되새김질하고 그때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있는 걸까?

머리맡에 떠오르는 무수한 물음들을 기록하며 나는 잠시 그곳이 벽장 밖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어쩌면 그곳은 이 숨 막히는 이성애주의의 한복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만들어진 열린 공간이었다는 상상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엔 그곳에서도 이성애주의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벽장 바깥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런 순서인 것처럼 여중시절이 따라오는 것은, 그곳이 내가 겪어본 공간들 중에서 그래도 비이성애정체성에 대한 비난과 억압이 심하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왜일까? 대체 왜일까? 사회화가 덜 되서? 비이성애정체성이 드러나면 가시적으로 억압받게 되는 직장생활과도 결혼적령기와도 아직은 멀리 있어서? 처음으로 사춘기를 맞는 이들이 이성애만이 진리는 아닌 학교의 공기를 맡으면서 새로운 틀을 인지하게 되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이유를 택할 수도 없고, 누구나 그 계를 끄덕일만한 전복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여중시절에 대한 글을 쓰는 내내 나는 행복했다는 것이다. 복잡한 질문과 뒤섞인 시간들 속에서 어떤 것을 골라내야 할지, 어떤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끝끝내 이 글을 완성하고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다. 어쩔



거나 나는 거기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열광할 수 있었어요. 조금 장난처럼 이진 했지만 그런 나의 감정을 온 학교에 말하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성애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나는 나의 기억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나는 내가 여중시절을 기억할 때마다 생겨나곤 했던 어떤 힘이나 기운 같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나 보다. 그 시절에 존재했던, 비이성에 정체성에 호의적이었던 그 공기는 지금도 나의 코끝으로 기억되어서 조용히 나의 존재를 지지해준다. 여성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딱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었던 그 공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으로 설명되는 나의 섹슈얼리티 역시 딱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러앉아 좋아하는 여학생을 고백하던 순간의 부드러운 공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비이성애자로서 살아갈 나의 삶을 응원 받는 마음이 된다. 그래 그때 우리에게 그런 공기가 이상한 게 아니었잖아. 이성애주의도 완벽하게 포섭해버릴 수 없는 굉장한 공기를 나는 경험했고, 살다보면 또 어딘가에서 그런 공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해벌죽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지금 다시 만나게 된 중학교 친구들 중에는 그때의 공기를 까맣게 잊은 이들도 있고 그걸 농담거리로 삼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선생들이 말했던 대로) 단지 '비정상적인 환경'을 졸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각자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여중시절에 흐르던 공기가 그녀들의 곁에서 흩어져버렸기 때문도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이성애주의의 벽장 안쪽은 그 공기가 스며들기엔 너무 비좁고 음침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좋아했던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매장해버렸던 것처럼, 이 벽장 안에서는 모두들 자신의 기억을 이성애주의라는 규격에 맞게 단호하게 내치고 조각 내야지만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까닭도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한다. 나는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그때의 감정과 지금에 와서 재구성하게 된 기억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여중시절의 나와 또 내 친구들의 빛나던 표정을 곰씹으며 조용히 앉아있을 따름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기억을 되찾았고, 쓸쓸한 맛만은 아니고 힘이 되는 공기까지를 기억해냈다. 어떤 정의를 내려거나 분석을 만들 수는 없어도, 난 사실은 이걸로 만족한다.

by Let me sing you a waltz 셀린느

아가 시절

한 애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애기에게 이성애주의가 침투한다. 태어나 지마자 성기의 모양에 따라 여성/남성으로 범주화되고, 여성으로 범주화된 이에게는 핑크색 아가옷이, 남성으로 범주화된 이에게는 파랑색 아가옷이 지급된다. 그때부터다, 핑크옷 아가와 파랑옷 아가가 여성과 남성이 되어 서로를 좋아해야 한다는 이성애주의가 그 아이의 인생에 침투하는 것은.

초중고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연애'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성교제'라는 단어는 존재한다. 그렇다. '이성교제'는 말 그대로 다른 성별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지만, 연애와 동의어로 쓰이며 그 말은 곧 '이성교제'만이 유일한 연애방식이라는 것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이성애자고, 동성애를 최악, 정신질환, 비정상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한다. 그렇게 배워나가며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체화하고(사실 정체화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성애자다.) 이성교제를 한다. '이성교제'는 때때로 허용되거나 금지되지만, 동성애는, 이성에 이외의 다른 다양한 성적체성은 선택지에도 없다. 혹시 동성친구에게 끌림과 끌림을 느끼고, 애뜻한 관계를 맺더라도, 이성애주의는 그것을 연애나 사랑이 아닌 '특별하고도 친밀한 친구관계' 정도로 각색 왜곡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된다고들 하는

어의상실 폐하승천
이성애각본

대학 시절

남자와 연애의 캠퍼스라. 그 이전에 연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학에서는 반드시 연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찌질이 취급당한다. 입학하면 미팅과 소개팅 기회는 넘쳐흐르고, 여성에게는 남자친구가, 남성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연애들엔 모두 '이성' 연애라는 팔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대학 이후

그 이후로 각자의 삶은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몇 가지 확고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한 이십 대 중반이면 자연스레 결혼을 했지만, 요새는 서른 즈음까지도 괜찮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벌의불 말을 다 듣는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인간이라는 종족을 자신의 손으로 멸망시키면 안된다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완전하지 않은 결핍된 상태라며 결혼을 종용한다. 결혼 역시도 이성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 중 하나다. 동성 간의 결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나, 어쨌든 결혼을 한다.

결혼 이후

결혼 이후에는 종족보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선 자식을 낳아야 한다. 자식을 안 낳는 부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늑대야 뺑-여우야 마-토끼같은 자식이라는 누가 들으면 참 이해 못할 '정상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은 '예비엄마'이고 '엄마'라는 것은 집안일을 다스리고 자식의 교육을 해야한다고 한다. 물론 아빠는 바깥일을 해야 한다. 요새는 많이 달라져서 일하는 여성도 있지만, 그런 여성은 아침마다 나와서 자신은 일을 하지만 애들 밥도 잘 준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가정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는) 이 세상의 근본이므로 그 이후에는 부부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한다.

무덤에서는

요배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형도 비슷한 게 그려진다. 혈통 같은 것 말이다. 남성 이름-여성 이름-자식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것이 적혀있지 않다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야기한다. '굴방에서 홀로 죽었다'는 식의 무례하고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말이다.

오호통재라,
나라면 무덤에서
불현듯
위화감을 느낄 것 같다.
아, 하나의 완벽한
이성에 각본 속에서
살아왔구나.
여긴 어디. 난 누구.



결혼, 뒤집어 보 기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잘 되면 알콩달콩 연애하고, 또 그러다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고, 잘 살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귀가 달도록 들어왔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엄마와 아빠에게서도 듣고, 학교에서 배우고, 드라마와 책들과 신문 기사, 다큐멘터리 등 어느 매체에서건 늘 확인 받아왔다. 그렇게 누군가와 친밀함을 나누는 건 결혼으로 귀결되는 일이었다. 그건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이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지도 단 두사람,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래서, 결혼은 무뎠 낭만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혼인을 통한 결합이, 정말로 당사자 둘만의 문제일까?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또 결혼하고 나서 꾸려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해 그 개인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있는 것일까? 어렸을 적에는 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던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자꾸 음모론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다. 정말 낭만화한 이미지처럼 결혼이 친밀한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왜 결혼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가를 통해 관리 받아야 할까? 결혼이라

고 이름 붙여지는 순간, 결혼은 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형태의 '가족 만들기'와 동의어가 되어 버린다. 사실 이 사회에서 행해지고 권장되는 결혼은 낭만의 결정체라기보다는 끈질기게도 반복되는 사회적인 승인을 거친 제도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결혼은 이렇게 당사자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관리당하는 데에서부터 '정상성'을 입 중받기 위한 무수한 잣대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성애중심주의에 기반한 이 사회에서 '건전한 이성'에 관계에서 올바르게 '결합'한 가족이 되었는지는 단연코 중요한 제 1의 기준이다. '국가의 노동력 증진'을 위해 애는 넣고 있는지, 그 애를 '사회에 이바지할 만큼' 잘 키우고 있는지 역시 무시할 수 없 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준이다. 그 밖에도 무수한 것들이 존재할 테다.

이렇게 온갖 기준들을 통과한 이들은 '정상 가족' (흔히 말하는 4인 가족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정상 가족'을 이룬 '이성애 부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즉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경제적인 제도 및 구조와 이성애중심주의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만 살펴봐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 편입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주택청약 분양권 우선순위 중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라는 항목이 있다. '정상가족'으로 말하자면 남성가장에게 이성의 배우자가 있고, 어쩌면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자식이 많은 사람일 수록 주택을 분양 받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세금 또한 감면된다. 1인이 1세대를 구성할 경우 월소득 300만원에 세금 113,39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4인 가족의 경우 그의 1/4 수준인 30,970원을, 6인 가족의 경우 20,470원을 납부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이성애중심적인 가족제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가족임금'이라는 것 덕분에 노동 시장에서 남성가장은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는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만 봐도 남성가장에게는 '가족을 챙겨야 한다'라는 명목 하에 주어지는 '혈연 자녀 교육비 지원', '배우자 사고나 배우자의 가족 경조사 때 휴가 및 지원금 지급'과 같이 온갖 보너스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 그 '정상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즉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제도적인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모든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주택청약 분양권 우선순위 중 하나가 '부양자가 많은 자'에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비이성애자들에게 이는 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자가 많은 가족의 가구주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껏 해 봐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 비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임금이 대물기로 남성가장에



계 4인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을 준다는 것은, 곧 레즈비언 커플에게 돌아오는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이 항상 그러한 상황이 처해왔듯 반찬 값 정도로 치부되는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임을 의미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누군가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그 누군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남자친구/여자친구는 있냐, 괜찮은 남자/여자 소개시켜줄까 등등. 애초에 결혼 제도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에는, 그 안에 이성애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는 한 치의 물음도 던지지 않은 채로, 사람들은 이성애 관계를 부추기고 그걸 결혼으로 끝인 시키려 애쓴다. '결혼=정상성'이라는 공식 하에 모두를 정상성의 범주로 포함시키려 이성애중심주의를 권장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온갖 경제적인 위협들이 도사리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의 결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 끝끝내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 때 비난의 화살은 그 사람에게로 쏘여 '비정상'이라는 이름을 남긴다. '인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만나줄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비이성애 정체성을 지닌 사람도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이성애 결혼일 뿐이다. 비이성애 정체성을 배제하는 이 사회의 제도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다른 방식으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도 그러한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결혼이 강요되고, 누군가는 '비정상'으로 몰리고 있을 것이다.

결혼은 정말 낭만적인 것일까. 글썽,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하나의 포장이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무럭무럭 솟아난다. 결혼이 정말 사랑하는 두 개인의 낭만적인 결과라면, 결혼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권리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인 낙인과 배제, 그리고 차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사회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는, 결혼 제도가 차별하고 배제하고 비가시화시키는 존재를 끝끝내 은폐시키기 위한 포장이지 아니었느냐 말이다. 어떤 뻔뻔한 물에 맞춰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의 '정상성'을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선택이었을 리 없다. 그러니까 낭만적일 수도 없다. 낭만적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한 것인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어떤 공동체를 구상하고 꾸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와 가족을 이뤄야 할지를 치밀하게 강제하는 이 사회에서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by 스누피



이성애중심주의로 존속되는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입학하고 그런 압박에 시달리듯이, 나도 그랬다. 2월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과반이라는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야빠'가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여서, 자꾸만 내 안에서 부딪치게 되는 불편함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 과반이라는 공동체를 잘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지나면 공동체 문화가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솔한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안에 켤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로 점철된 공동체의 문화가 그렇게 공고한 것일 줄은 정말로 몰랐다.

2월, OT와 새터를 통해 겪었던 술자리를 비롯한 만남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하는 온갖 게임들은 별로 재미있지 않았다. 재미있는 척 아무리 웃고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제대로 이름을 기억하기도 벅찬 사람들과 다른 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뻔뻔하게 게임과 같은 '놀이'를 통해 부담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게 싫었다. 말쑥박기나 포스트게임을 해도 왜 꼭 '예쁜' 여자애들한테 남자 선배들과 동기들이 달려들어서 도움을 가장한 스킨십을 하려 하는 건지 보기가 싫었다. 술을 마시러 가서 편한 게임들만 난무한 가운데, 별척으로 술을 먹게 될 경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성애와 러브샷을 시키는 게 민망했다. 그 별척이 내가 받은 것이건, 다른 누군가가 수행해야 했던 것이건 상관없이,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물음이 내 머릿속을 동동 떠다녔다. 술자리에서 괜히 여남이 눈빛만 마주쳐도 '사져라'를 연발하는 그 장면들이 이상했다. 누가 그렇게 정

했던 걸까. 어떻게 알았던 걸까. 모두가 이성애자일 거라는 것을, 그래서 괜한 게임이나 별칭 하나하나, 농담 한마디 한마디가 (장난이건 말건 상관 없이) 잠재적으로 이성애 거품을 만드는 데 주력해도 된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놀이문화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애쓰고 공동체에 적용하면 이성애중심적인 게임이나 농담을 하나하나 없애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했다. 이미 함께 입학한 동기들 중에 그런 문화들을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활동을 그만 둔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꼭꼭 작성을 잘해서, 적어도 다음에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안 겪어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문화가 단순히 공동체의 전체적인 문화의 일부분, 하나의 하위문화라고 여기고 넘여가기에는 좀 결끄러운 데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공동체의 진면모를 찾아내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써도, 이성애중심주의는 어디에서건 나타났다. 과반의 특정한 문화만이 이성애중심주의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동체 그 자체가 이성애중심주의로 인해 존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고, 구성원 간의 결속을 보장받았다. 이성애중심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속 깊은'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성연애에 관련된 것이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화두가 되었을 때 과반의 사람들은 참으로 잘 웃었다. 괜히 모인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사람들은 각자 공동체에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진심게임을 하라고 했다. 돌아가면서 나는 누가 괜찮더라 라는 고백 아닌 고백을 내뱉으면 모두들 가슴 한 켠에 비밀을 간직하듯 뿌듯해했다. 공동체의 남학생이 같은 과반에 속한 여학생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지면 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둘을 연결시킬까 전략회의를 열었다.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열리는 회의(라고 칭해지는 술자리)에 끼지 못하면 공동체에서 멀어지기 마련이었다. 이렇게 세고 센 모임들에서는 한 번도 이성애중심주의를 성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성연애 문제로 골머리 한번 췌해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 비정상인 거 아니냐며 그들 안의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했을 뿐. 하긴, 이렇게 사람들을 자주 모일 수 있게,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공동체적 결속을 파도 내는 것으로 여겨졌으리라.

과반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 건 '예쁜 애'가 참석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과반의 엄청난 이성애자 남성 중심적인 문화 덕에,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잠정적인 연애 상대로 보는) 여자친구가

오는 행사에는 그걸 미끼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찾아왔다. 언젠가 모 통신사의 광고에서 나왔던 '공대 아랍이'의 에피소드가 저런 남 일 같지 않았다.

연애 만이 문제라기에는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 이성애 관계에서의 성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메타포로 끊임없이 작용했던 것이다. 공동체의 행사 및 결속과 단결을 책임지는 것은 남학생들이었다. '아빠'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회장 혹은 복학생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놀 수 있을지를 기획했다. (여기서 '조화롭게' 논다는 것은, 남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여학생들이 응원하는, 성별 이분법에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구도였을 뿐이다.) 또한 남학생들은 호탕한 농담을 던져 술자리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 농담이 어떤 음담패설이었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였을지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크고 우렁찬 웃음으로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했다. 반면에 여학생들은 '아빠'인 남학생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엄마'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다독이는 감정노동을 해야 했고, 여성비하적인 농담이 나와도 못 들은 척 넘겨야 했다. 대규모 술자리에서 남자들만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적절히 찾아내서 그 테이블의 '꽃'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이성애중심주의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성별 이분법,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온전하게 만드는 '진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의 대학 공동체 생활기는 그리 밝지 않다. 완벽한 이성애자 여성/남성으로 위장하지 못할 바에는, 공동체의 이성애중심성이라는 코드에 온전한 재미를 느끼지 못할 바에는 진작에 과반 생활을 포기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나의 오만이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이성애중심주의를 고민하고 해체한다는 게, 단순히 이성애중심적인 게임이나 농담을 그만 두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미션이 아닌데도 나는 너무 순진하게도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내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동체에서 떨쳐내고 싶었던 이유는, 그렇게 나타나는 공동체 문화가 나에게 재미는 고사하고 불편함과 소외감과 분노만을 덩그러니 남긴 상처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누군가들이, 미처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 말하지 못한 채로 공동체에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모두가 하하호호 즐겁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누구이며, 그 안에서 적응할 수 없었던 누군가의 경험과 존재는 어떻게 지워지고 무시되고 있는가.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모두가 이성애자일 거라고 당연하게 전제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공동체 문화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속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그 결속이 가능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권력은 어떤 타자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성애중심주의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험들이 비가시화되고 공동체에서부터 밀려나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 이성애중심주의를 뒤집지 않으면, 즐거운 공동체는 개불, 평생 가도 이성애중심주의에 공모하고 있는 셈이 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절로 호모포비아가 되는 세상이란 말이다.

by 팬더

① 이 광고는 공대의 남초 현상과 이성애중심주의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공대 MT에 같은 과의 유일한 여학생(간혹 보이는) '아랍'이를 참석시키기 위해 영상제작로 프로젝트를 연상시키는 이벤트를 줄줄이 꾸민다. 드디어 '아랍'이가 MT 참석 의사를 밝히자 남학생들은 패자를 부르며 MT에 간다. (이후에 MT 속스에 도착해서 옆방에 여학생들이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랍이는 한방인사가 되는 반전이 있다. 이게 무슨 반전이지?)

25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나에게 군대를 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언제나 내 안 어딘가를 두둥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가기 싫다. 군대가 싫다. 뭐 누가 가고 싶고 좋아하겠나만은 성소수자인 나에게 군대는 가기 싫음을 넘어서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오곤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그러저러 참을 만한 수준으로 자신과 주위를 조율해 왔고 따라서 군대에 가고 군인이 되어도 이성애자인 척 연기하며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서 약간의 로망을 꿈꾸게 만드는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기숙사에 대한 환상처럼 군대에서의 로맨스에 대한 환상이 내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들어왔다. 주방에서 창고에서 어딘가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사랑이, 연애가, 로맨스가, 낭만이 있었다는 증언을 듣는다. 까아 - 그 생각을 하면 살짝 두근두근.

그런데 비슷하다.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해방 이후 육십년 동안 그렇게 성소수자의 사랑은 존재해야만 했지 않는가. 나의 집에서, 어두운 극장 안에서, 교실 뒤편에서, 하지만 거리에선 허용되지 않는 사랑을 해오지 않았는가. 로망이요, 환상이라고 떠들지만 뭐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일 뿐인 것 같기도 하다.

군 대 가
실 인
성 소 수 자 의
넋 두 리



어쨌든 이런 헛로망을 돌고서 들려오는 험한 이야기들이 있다. 동성애적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든 소위 '계간죄'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가 군대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이를 신고하자 오히려 동성애적 성행위를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 커밍아웃했더니 병원으로 보내버리더라는 이야기, 동성애자를 병영내 유입/화산 대책이 미비하고 이성애자로 전환 희망할 시 적극 지원해주신다는 국방부에서 하사하신 신성하신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에 대한 이야기, 그 밖의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에 대한 더러운 이야기들, 휴가라도 나오면 성매매 업소에 단체로 가야만 한다는 이야기, 자신의 연애사에 대해 구질구질하게 모조리 꺼내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저런 정말 들으면 귀가 찢을 것만 같은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위협을 느끼고 의문이 든다. 과연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잘 적응한다면 (자신이 아닌 존재를 잘 연기하는) 그런 자신을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

지구를 뒤덮어 버린 이성애중심주의의 마수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 본적이 없지만 군대는 더더욱 가혹한 공간인 것 같다. 군대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클 것이다. 개인의 선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공간, 여성과 남성의 성별분업이 타무니없이 명확하고, 싸울 수 있는 자와 싸울 수 없는 자를 더더욱 나누고, 그 공간의 모든 이는 이성애자여야 함이 명확한 공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법적으로 처벌 받는 공간.

군대 밖의 사회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 이성애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학교든, 집이든, 직장이든 차별 받는 건 흔한 일이지 않는가. 단지 군대가 다른 것은 소위 '장'의 탈을 쓰고 계신 법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처벌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이성애가 아닌 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더욱 크게 아주 우렁차게 사회 전체로 울려 퍼진다. 성소수자는 처벌 받아도 된다. 이상한 존재다. 배제되어도 괜찮다. 차별하라! 폭행하라! 불라불라.

군대가 하나의 종처럼 느껴진다.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소위 '성소수자 처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군대에는 '계간죄'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가끔 처벌법이 없는 이유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닐까 싶다. 일상적으로 잘 처벌하니까?) 이성애중심주의를 널리널리 알리는 종, 언제나 일상적으로 땡땡 땡땡 울리는 종, 언젠가 그 망할 종을 부셔! 버! 밀!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꿈!꿈!꿈! 타협과 저항의 연속인 하루를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넋두리, 꾸르릉.

by 마쯔

이 성 애
공 화 국
취 업 백 서

귀어한 노동권*을 찾아서

토의 안정 받았다고 아무나 취직되진 않더라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면접관은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통제하기 쉬운 사람을 좋아하지요. 남자라면 남자답게 책임감 있고 든든한 사람을 뽑을 테고, 여자라면 여성스럽게 커피도 잘 타고 애교도 잘 따는 사람을 뽑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저질의 빈곤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귀아들에게 임금노동자로 살기란 참으로 동굴 빠져는 일일 수밖에요.



01
너는 이성애자 가족의
건강한 남성 가장이
되어라

노동자, 라고 하면 당신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아 많은 이들에게 '노동자'는 한 명의 건장한 남성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는 살림하는 아내와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 학비, 여름휴가비 등등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을 테지요. 그는 자주 술 냄새를 풍릴 풍기며 거어들어오는 피곤한 아버지이며, 그래도 월급날에는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와선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 양념통닭을 안겨주곤 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온 세상이 원하는 노동자 역시 이러한 이미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애자 남성가장말입니다.

이 세상을 주무르는 자본주의계서는 가족임금제도를 발명하사, 이성애자 남성 가장을 그 제도의 수혜자(혹은 희생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로 점지하였습니다. 가족임금제도는 한 이성에 부부를 중심으로 한 '정상' 가족에서 오직 한명만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임금을 몰아주는 제도입니다. 그와 동시에 임금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직접적인 생계부양자가 아닐 거라는 평계를 대며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가사노동, 감정노동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재생산노동을 도맡기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재생산노동의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하등의 대가도 지불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가족임금제도가 선택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본주의가 무한히 팽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두에게 같은 대가를 줘선 안 되었고(어떤 이의 노동은 좀 더 짝 가격에 착취해버려야 하니깐요), 둘째로 그런 불합리를 크고 아름다운 진리인양 포장해야 했습니다(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마침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논리를 발견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가부장제 이성애주의입니다. 가부장제 이성애주의 아래에서는 첫째로 여성과 비이성애자의 노동은 이성애자 남성 가정의 노동보다 적은 댓가를 받아 마땅했고(여성과 비이성애자는 애초에 결여된 인간이므로), 둘째로 모든 사람이 그걸 아름답게 여겼습니다(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엄마가 안아줄 때 뽀뽀 홍석천은 꽃겨니야 뽀뽀였으니까요), '경축! 가족임금제도의 탄생! 헐려후밤.

자본주의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이보게, 이제는 여자도 바깥일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은 삼가시게. 하지만 귀신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요, 여전히 가족임금제도는 교묘하지만 강고하게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는 백 개라도 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로, 아직도 여성이 고용되기는 남성보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고용된다하더라도 비정규직에 저임금까지 세트르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이성애자 남성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딱히 책임질 사람도 없으니 이정도 대우로 만족하라면서요. 게다가 맞벌이 부부에서도, 한부모 가정에서도 결국 가사노동과 감정노동과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노동들을 도맡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남성가장이 재생산노동을 자기 일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

다. 또한 직장에서도 비이성애정체성은 절대 드러낼 수 없습니다. 비이성애자임을 의심받게 되거나 행여나 아웃팅 이라도 당하게 되면, 곧바로 퇴출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족임금제도에서 비이성애자는 '정상' 가족을 꾸리지 않는 결여된 존재이며 따라서 그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과 재생산노동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있어도 안 되고, 설사 있다면 쫓아내야 할 상상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이는 이성애자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경험과 습관을 꾸며내야 하기도 하고, 레즈비언은 여성이자 비이성애자로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첫 보세요, 여전히 이성애자 남성가장이 아닌 이들은 임금노동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남성보다 못한 임시직 노동자일 뿐, 절대로 그들과 같은 지위는 가지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가부장제 이성애주의는 단지 누군가를 임금노동자로 고용하고 말고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일을 '잘' 하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문제에도 이미 가부장제 이성애주의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주의가 당연한 일터에서는 남성노동자라면 남자다울수록, 여성노동자라면 여성스러울수록 살아남기 편해집니다.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성애 규범은 단지 이성을 좋아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성역할에 따르고, 그에 맞게 외모와 성격을 꾸미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전부 제한해버리는 강력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의 우수사원에 '남자다운' 남성이 많은 이유도 상당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수사원이 되려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고, 그를 위해 타 기업에 인사하러 갈 때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책임감 있는 남성이 어울립니다. 그 뿐입니까, 계약을 따내려면 3차로 단란주점엘 갔다가 결국 성매매집결지까지 사이좋게 달려 들어가야지요. 그 곳에서 여기 우리 모두는 해태로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 우리 모두는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비열한 섹스얼리티를 소중한 비밀처럼 나누어 가지고, 그를 통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우정도 만들어야지요. 게다가 마지막엔 사우나에라도 가서 서로의 몸을 응시하며 여기에는 남성의 빛은 몸을 응시하는 것이 불편한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이란 단 한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흐뭇해함으로써 돈독하니 의리라도 좀 다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라면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어떻게든 남을 설득시킬수록 평가가 높아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이성애자 남성의 경험을 당연시하고 이성애자 남성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일할 때라야 '훌륭한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서, 비이성애자나 여성사원은 영업실적을 올리기도 힘들뿐더러, 공식적인 실적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수도북백백합니다.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졌다고 의심받으면 우리 직장에선 있어선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다반사구요, 여성노동자에게 커피나 차를 준비하는 섬세함이나 외모를 가꾸는 자기관리능력이나 가정일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현모양처성이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이성애자 부모에게 태어나 이성애자 이성과 결혼하여 이성애자 자식을 낳아 기르라는 이성애주의 사회, 여성성/남성성을 더 많이 획득할수록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이성애주의사회, 이렇게 가부장제 이성애주의는 우리의 가슴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예비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효과적인 훈육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2 누구도 퀴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여기 자본주의와 이성애주의가 뒤얽힌 시공간에서는 퀴어들이 원한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돈 벌기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성애규범의 질서를 교란하는 인물들이며, 그러므로 효과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방해하는 인물들이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은 노동자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퀴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애물을 도처에 설치해두었던군요. 일단 이력서를 쓰면서부터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범적인 이성애자 남성/여성으로서 평생을 살아왔음을 증명해야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로 시작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남성/여성'과 어긋나는 경험이 한치라도 존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3×FTM)*에 등장하는 ○○의 이야기는 이 규칙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속속들이 보여줍니다. 첫째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별에 맞는 주민등록번호를 온전히 부여받기조차 힘듭니다. 2006년에야 마련된 대법원의 성별 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지침은 그 허용 기준이 너무나 좁아 터졌구요, 호적 정정이 된다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 등에 성별 변경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차별에 노출되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해서 맘 편하게 직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근데 회사가 그 문제를 처리하면서 저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학력위조와 경력위조로 저를 고소한 거죠. 학력이라든가 경력을 위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외모와 1번이라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이력서에 기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략) 나는 성전환자로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이력서에는 최소한 고등학교 때부터 쓰게 되어 있으니까. (중략) 경력도 그래요. 제가 근무한 경력을 그대로 다 기재해서 제출한 건데,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조사할 때 지금 주민번호로 조회를 했으니까 당연히 근

● 성전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가운데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mtf와 ftm이라는 용어이다. mtf와 ftm에서 영문 앞글자 f는 female를 뜻하며, m은 male을, t는 to 혹은 toward를 뜻한다. 따라서 mtf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ftm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mtf와 ftm이란 용어는 실제 전환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용어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의자나 전환가정을 명확히 하는 용어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3ftm>)

● 2006년 대법원이 최초로 성별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며 △성전환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중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관계나 직업 등도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며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아는 경우에 성전환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성전환증이 없음에도 임의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면 성별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요, 미국 정신과학회는 성전환증을 '자신의 선택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함과 부적절한 노력을 느끼며 성정을 제거하고 반대 성정을 얻으려는 집착에 2년 이상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성전환자도 행복 추구권' 호적 성별변경 허가, 한겨레, 2006년 6월 23일) 이렇게 민사의 재판권에 맡기자 혹은 독자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맞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이 발의되고 2002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없다고 있는 실정이다.

● 3×FTM :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애훈치마 기획, 김성희, 조혜연, 루인 정리, 그란비, 2008, 158p.

무 경력이 나올 리가 없었던 거죠. 주민번호가 아예 바뀌었으니까. 아예 지금 주민번호로는 대한민국에서 전혀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니까. (후략)³⁾

1/2라는 두 가지 숫자에 모든 사람을 싸잡으려는 신분증명제도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2에 가뒀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대부분 저임금에 고용도 불안정한) 곳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 취직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과정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실사 취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퀴어들에게 안정적으로 노동하기란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의심할 여지없는 이성애자 여성/남성이요'라고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일터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의심받는 곳이자 아웃팅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곳일 따름입니다. 스포츠머리를 한 여성이나 패셔너블한 남성과 같이 '여성적/남성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외모나 말투만 가지고 있어도 뒷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성연애나 이성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지죠. 이러한 의심으로 인해 직장 내 인간관계가 제한되고, 능력을 부당하게 평가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비이성에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면요? 팔리거나 은근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2000년 홍석천은 커밍아웃 사실이 알려지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연 중이던 라디오 시트콤과 아동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도 없이, 어떤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많은 퀴어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정체성을 완전히 숨겨야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체성이 알려지게 되면 감봉, 이직, 승진에서의 제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하기도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비이성애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곳이 숨 막히는 호모포비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비이성애정체성을 우리 일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 절대로 우리와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한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호모포비아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가족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지는 급여와 보상체계 역시 퀴어들에겐 보이지 않는 억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보면요, 이성 배우자+혈연으로 맺어진 자식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만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 해준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회가 좋아하는 정상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은 배우자수당과 자녀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아를 때 받는 월차탈지 자신의 이성 결혼이나 배우자 가족의 경조사 때 받는 휴가와 지원금이랄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비이성애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법적이고 사회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다쳤을 경우에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당연히 휴가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애주의 사회는 이성결혼으로 맺어진 혈연관계 이외의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까지도 모두 재단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성애주의 성별규범이 제시하는 획일적인 삶의 방식에 고분고분하게 따를 리 없는 퀴어들에게 가족임금의 울타리에 묶여진 임금노동이란 이렇게 다층적인 억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03 그러나 어디서도 퀴어의 노동권은 말하지 않아라

이렇듯 퀴어로서 노동하기 힘든 현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막상 법전이나 국회에서 퀴어의 노동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는 무지 힘들다. 한국의 법에는 퀴어를 차별하라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성애중심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고자하는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1년 소방관 편모씨는 동료와 동성애관계를 맺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방관 편모씨는 행정법원에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편모씨가 승소한 소식은 기쁨의 롤라댄스라도 취할 소식이지만, 판사의 판결문을 들어보니 막상 그렇지도 않더군요. 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린 기준은 "원고와 K(33·남)씨의 관계는 정상적인 교분관계나 취지에서 장난삼아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동성애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가 내린 2개월 감봉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⁴⁾ 이러한 판결 기준을 뒤집어보면, 만약 편모씨가 근거가 충분하여 동성애자로 '판명' 된다면 충분히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판사의 머릿속에 호모포비아가 그득하고, 법제도에는 이미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가 문제임을 전제로 하는 여가 이곳에서는 어떤 법으로도 퀴어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⁵⁾

한편 이렇게 기독교를 위해서 짜여진 법과 사회를 공격하고, 그 속에서 억압받는 '소수자'들과 연대한다는 진보진영에서조차 막상 성 '소수자'의 노동권만 가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보진영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연대한다는 노동자 역시 결국은 이성애자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민주노동당에서 제작한 "우리 정규직되면 결혼하자"라는 문구아래 남성이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비정규직법 반대 포스터에서도 그것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보정당은 왜 이 포스터가 감동적이라



③ 동성애 때문에 받은 징계처분 취소 위법 판결, 매일경제, 2001-01-09

④ 2007년에는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법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종교계가 대한민국을 동성애자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며 호모포비아적 발언과 함께 정치적 위임을 행사했고,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함께 학력, 병역, 언어,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기록 등 총 7개 항목을 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등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적지향 등의 6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괜찮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를 아니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이 만들어졌으며, 2008 1월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별도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논의 한 번 없이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률안은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고 현재는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차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체로서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고 생각했을까요? 왜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하는 감정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중요한 동인으로 삼았을까요? 이 포스터가 공략한 것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결혼해서 자신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노동자로 살고 싶은 소망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한 주제로 삼는 철의 노동자는 이성애자 남성가장인 것이죠. 이렇게 이성애자 남성가장만을 노동운동의 주제로 상징하는 시각은 진보진영의 활동과 주장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기존 남성이어야만 노동조합 내에서 선출직 간부가 될 수 있었다는 일화처럼, 집회현장에서는 여성 '동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앞쪽에서 전경과 육체적으로 대치하는 남성 노동자가 철의 노동자였고, 노동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사측과 만나러 갈 때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성애자 남성가장이 협상주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퀴어를 역시 노동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그토록 줄기차게 외쳐온 진보진영에서조차 '성소수자 의제'라는 딱지가 붙은 퀴어의 노동권은 부문운동, 부차적 운동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성소수자'를 인식하는 관점은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별반 달라보이지가 않네요. 정체성이라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임에도, 중심의제와 부문의제라는 위계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 '성소수자 의제'를 계속해서 하위 주제로 밀어내는 진보란 결국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세련된 방식일 뿐이니까요.

퀴어한 정체성으로 노동하기란 혼란과 충돌의 연속입니다. 요 사회의 '노동' 자체가 이미 이성애주의적으로 짜여있고, 그 규칙에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의 방식을 구겨 넣으려니 힘을 수밖에요. 게다가 대통령도 법도 노동운동까지도 퀴어가 노동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으니 더욱 고달플 수밖에요. 그럼에도 '퀴어한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굉장한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퀴어로서 노동할 수 있는 세상을 기획해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성애중심적으로 짜여진 노동현장을 뒤집어보는 한 순간 한 순간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by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그걸 꼭 해야만 할까 파니

● 2004년에 모 노조에선 기존 위원장이 불신임을 받아 사퇴하고 조기 선거를 하게 됐다. 개혁을 추진했던 그를 성원들은 거의 여성들이었고 남성은 모두 미혼이었다. 그러나 이 노조에선 대다수 노조원들을 대표할 위원장 후보를 '기혼남성' 중에서 찾았다. 기혼남성을 여성들과 미혼남성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표자로 삼는 이런 통조는, 선출직 간부의 자격 요건이 '기혼남성'임을 공공연히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못지않을 풍경이다.(중략) 한편 그 비율이 정확히 내려져있진 않지만 노동자 중에서도 성소수자는 존재하며, 노동조합 내에도 역시 성소수자 조합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운동 내 어떤 자료나 이슈, 통계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중략)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한 조합 내 편견 때문에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나이 많은 성소수자들은 주위 시선으로 인해 노조활동을 차츰 접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조직 내 성소수자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기보다는 실제 존재한다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노조간부 자격요건은 '기혼', 앞다, 2005-05-10)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

3×FTM :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그린비

이 책은 생물학적 성 '여성'(female)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 '남성'(male)으로 성전환을 한 세 남자, FTM(Female to Male)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성적소수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에서 1년여 동안 참여한 다큐멘타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책은 세 주인공의 각기 다른 성전환 배경과 자신들의 이야기(성정체성을 확실히 한 계기, 수술과 욕망을 솔직하게 들려주면서 독자들에게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둬 줄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책 소개에서 발췌)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위문, 사람생리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려했던 정부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싸웠던, 투쟁에 대한 기록이다. 국내외 차별금지법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했으며, 기획부터 발간까지 전국 성적소수자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책 소개에서 발췌)



들어가보면 좋을 사이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www.lgbtact.org>
진보신당 성정체성기획단 블로그 <http://nsgp.tistory.com>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http://lgbt.kdip.org>

남자친구 있어?/여자친구 있어?

이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친구와 오랜만에 만날 때, 날씨 좋을 때, 날씨 나쁠 때, 배가 고프을 때, 배가 부를 때, 시도 때도 없이 언젠가 듣는 말이다. 여성에게 '남자친구 있어?' 남성에게 '여자친구 있어?' 라는 질문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이성애자라고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 나 남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있어' 라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도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전제하고,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저 질문은 비이성애 정체성을 삭제하고, 비이성애 정체성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상정한 말이다.

그런거 잠깐 지나가는 거다. 너네가 남자를 못 겪어봐서 그래.

레즈비언, 특히 여중/여고에 다니는 10대 레즈비언들에게 이성애주의자들이 내뱉는 망언이다.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결핍되고 비정상적인 일이며, 한 때 지나가는 거라며 하는 말. 이 말엔 여성들은 남성 없이 주체적으로 성적 실천을 할 수 없다는, 따라서 결핍된 존재인 여성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성차별주의와, 이성애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경험을 삭제하고 모든 이의 경험을 이성애주의로 재단하려는 이성애주의가 숨어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사실은 망언

세상에는 아무렇지 않게 무척이나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망언인 말들이 있다. 이성애주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듯이 이성애를 녹아있고, 사람들 사이의 말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이성애주의는 이성애 정체성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정체성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비이성애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생산한다는 건 수천 번 말한 것 같아 말하기도 지친다. 그냥 한번 살펴보자. 이성애주의 아래 망언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망언들. 현실감 200퍼센트, 수천만번 말하고, 들은 것을 빚한 그 말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결혼. 결혼. 결혼. 결혼 제도는 이성애자에 의한, 이성애자만을 위한 제도다.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반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성애 결혼제도는 그들을 손쉽게 차별, 배제한다.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이성애)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은 이성애자들에게도 짜증나는 질문이지만, 결혼 제도가 배제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짜증을 넘어서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자. '이성애 관계만을 인정하는 결혼제도 부당하지 않니?'

난 동성애를 찬성해/반대해

특히 대학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망언. 자신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성애주의자 교수의 지도 아래 학술적인 척 하며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누군가의 존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더니, 그럼 찬성하면 허용하고 반대하면 불허한다 말인가.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다. 감히 무슨 권력으로 찬성하고 반대한다 말인가. 이런 토론들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타자화하고 이성애주의의 권력을 행사하고 공고히 하는 세련된 방식의 호모포비아일 뿐이다. 이런 수업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자.

너 게이같애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한 남성이 이성애 성역할 규범에 위반되는 언행을 할 때, 즉 '남성답지 않은', '여성스러운' 언행을 할 때 발생하는 말이다.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남성역할 규범에 벗어났다는, 정상이 아니라는, 이상하다는 맥락의 이 발언은, 이성애-정상, 동성애-비정상이라는 구도를 답습,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성애규범을 훈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도 깔려 있다.

그 외에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성애주의에 기반한 망언들은 넘쳐올라 바다를 모두 메울 정도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지칠 정도로, 문제는 이러한 망언들이 망언으로도 안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성찰해보자. 나의 말들이, 나의 행동들이 혹시 비이성애정체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호모포비아적인 의미와 맥락이 담긴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단지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이성애주의, 호모포비아를 성찰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다.

이제는 스스로 성찰해보자.
나의 말들이,
나의 행동들이
혹시 비이성애정체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호모포비아적인
의미와 맥락이 담긴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사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이면 남과 별 다른 충돌 없이 그저 좋게 좋게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이지요, 사실 누구랑 싸운다는 거, 그게 쉽게 못할 일이거든요, 서로 감정 상하는 일도 생기고, 스스로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자 해도 가끔 제 안에 깊숙이 숨겨진 파이터 본능을 끄집어내는 어떤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땐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쓰지만 실은 귀찮음이라고 읽습니다만과 저의 분노를 저울질하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곤 하죠. 이번에는 저의 분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상경논총

“성적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본격



처음에

상경논총 표지를 봤을 때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에덴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아닌 아담과 아담이 살고 있는 그림이 표지였거든요. 기초가 무려 '금기' 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단번에 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였습니다. 읽기 전에는 아, 이번 호에는 '금기'를 주제로 글을 썼겠구나 했는데 상경논총을 읽다보니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더군요. 놀랍게도 '금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상경논총 글이 바로 '금기'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관한 글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멀쩡한 사람 몇몇 패닉 상태에 빠뜨리겠더군요. 저를 포함해 제 주위의 상당수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고요. 그러니 이대로 놔두면 참으로 위험한, 금기로 삼아 마땅한 글이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멀쩡한 글 가지고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지도 몰라서 이제부터 제가 왜 이 글을 읽고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었는지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먼저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라고 부르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글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시종일관 전제하고 있는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글이 지칭하는 우리=이성애자. 그들=동성애자라는 것은 이 글의 부제만 봐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글의 부제이죠.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따로 글 한 편까지 써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동성애를 낯선 그 무엇, 따라서 따로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그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이성애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성애자겠지요. 사실 상경논총의 독자층을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경논총의 독자층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필자가 글에서 설명한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의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속해야 합니다(설마 연세대학교에는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통상 필자 자신과 독자를 포함하는 호칭인 '우리'에 당연히 이성애자들만 속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그들의 구분 자체가 지극히 이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독자층만 제대로 고려해도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독자도 얼마든지 상경논총을 읽을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셨나 봅니다. 제목부터 결론까지 주구장창 우리 우리라면서 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독자만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대체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독자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설마 비이성애자들은 내 독자가 될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책을 덮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LGBTQIA를 포함하여 이성애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정체성을 총칭하는 것임이다. LGBTQIA란 L은 Lesbian, G는 Gay, B는 Bi-sexual, T는 Trans gender, A는 A-sexual(무성애자), Q는 Intersexual(간성, 혹은 양성 성기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의 중간성, 혹은 양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 Q는 Questioning(자신의 성적정체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며,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확고한, 고정불변한 그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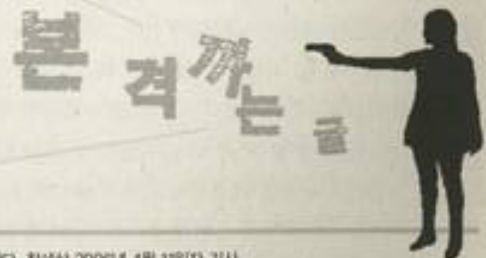
이 글에서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자는 "사람들이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동성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만약 동성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두려움과 혐오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동성애의 원인과 역사, 동성애를 바라보는 각 종교들의 시각, 그리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분석하고 있지요. 동성애에 관한 소위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사실을 나열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나름대로 타파해보고자 했던 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조차도 실은 이성애중심주의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이성애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도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를 특수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려 듭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회라면 동성애를 굳이 왜 연구와 분석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필자가 끊임없이 동성애를 분석하려 드는 것도 동성애를 '신기한 것', '특수한 것'으로 보는 이성애중심주의의 한 발로지요. 동성애는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면서 도대체 이성애는 왜 허용되는가, 이성애는 정신적인 병리현상인가, 이성애와 관련된 용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이성애의 역사에 대하여, 이런 것은 왜 분석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성애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문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동성애자를 포함한 비이성애자들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만 환원해버리는 것은 비이성애자들은 이 사회의 특수한 존재라는 편견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많은 연구에서 동성애를 분석하는 차원이 동성애자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이성애/동성애 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동성애자가 연애하고 섹스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연애의 차원에만 한정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being)의 문제인데 말이지요. 비이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회의 공고한 이성애중심성에, 그리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편견과 억압에 맞닥뜨려야 하는 비이성애자의 현실에 대해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성애만이 마치 자연스러운 성정체성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이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애-비이성애 간의 권력관계나 비이성애자들 개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을 고민하지 않는 채, 동성 간 연애나 섹스에만 초점을 맞춰 동성애의 역사나 동성애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금기를 해체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자신은 글을 쓰기 전에는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죠. 하지만 글을 읽다보면 난 호모포비아가 아닌데...데.....라지만 사실은 맞는데...가 절로 드러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의 '동성애자=에이즈?'라는 부분이 특히 그렇지요. 이 부분을 읽다보면 "동성애=에이즈는 분명 잘못된 편견이나 그 가능성이 이성 간의 성 접촉보다는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단순히 중립적인 사실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참 의문입니다. 위생적인 섹스는 동성 간 섹스나 이성 간 섹스 모두에게 중요한 것

이죠.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 이성 간의 성적 접촉보다 에이즈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설령 이러한 설명이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설명은 동성애=에이즈라는 편견을 종식시키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성 간의 섹스는 문란하고 따라서 에이즈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식의, 에이즈에 동성애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덧씌우는 기존의 호모포비아적 편견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만약 필자의 의도가 안전한 섹스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차라리 섹스를 할 때는 콘돔을 꼭 착용하라고 하는 편이 나았겠죠.

그 다음 구절은 더욱더 호모포비아적입니다. "단순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동성 간의 성적 행위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닐 경우에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 내에서 비밀배재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이다"라는 구절을 봅시다. 이 구절을 보면 필자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으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 성폭력은 동성애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동성애자라면 동성 간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 휴먼 라이즈 위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남성 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는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②. 그리고 군대에서 일어나는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적 충동보다는 자신의 남성성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 좀더 설득력있는 설명입니다. 이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의 피해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보다 계급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동성 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이 권력관계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언제나 동성 간 성폭력의 가해자로는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동성애자만을, 피해자로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이성애자만을 떠올리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호모포비아적 발상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교도소에 수감된 동성 간 성폭력 가해자 면담에서 가해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여기서 동성애자로서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다 라는 강한 동성애혐오증상을 나타낼 정도



② 정윤, [정윤의 레인보우액션] 동성애자 차별의 실면, 군대를 말한다, 창세상 2006년 4월 17일자 기사
③ 정윤, [정윤의 레인보우액션] 동성애자 차별의 실면, 군대를 말한다, 창세상 2006년 4월 17일자 기사

로 이성애자 남성성에 충실합니다. 따라서 동성 간 성폭력의 가해자는 당연히 동성애자, 피해자는 당연히 이성애자라는 생각은 성폭력이 권력관계의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며,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의 "성적 쾌락을 위한 단순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의 경우 규탄 받아 마땅하다."라는 구절 역시 호모포비아를 그대로 드러내죠. 성적 쾌락을 위한 단순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왜 규탄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규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면 이성 간에 성적 쾌락을 위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규탄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이성 간 성적 행위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성 간의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내가 이성애자라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죠. 반면 동성 간 성적 행위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성 간 성적 행위는 아예 부정되거나,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지난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사실 내가 특정한 성적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곧 내가 특정 성과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적정체성은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한 존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요. 따라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성적 쾌락을 위해 동성과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성애자로 굳이 나를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성적 쾌락을 위해 이성과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기에 유독 동성 간 성적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 간 성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호모포비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적 행위를 규탄할 수 있다는 필자의 발상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이제 결론 부분을 봅시다. 필자는 나름대로 호모포비아적이지 않은 양식 있는 지성인이 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필자는 지성인인지는 몰라도 안타깝게도 이성애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동성애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들을 찾으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동성애자도 존엄한 권리와 소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들의 사명에 관해서는 필자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황설수설입니다. 결국 필자는 나는 완전 이성애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왜냐, 이성애자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멋있하기 때문이죠) 나는 동성애자들에 아직 이해하기 힘들지만 책을 보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같고 다 같은 인간이니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관용이라는 게 무슨 뜻 일까요. 네이X 국어사전에 보면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만약 이런 의미로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동성애를 비롯한 비



이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걸 배척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한 것일 텐데...이거 참,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리다'가 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관용을 베풀자는 것, 그야말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하겠죠. 오로지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옳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만 이성애자가 비이성애자의 성적정체성을 잘못된 것으로 낙인찍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성찰 없이 관용을 베풀다고 말하는 건, 비이성애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화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누군가의 차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그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겠다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믿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먼저 성찰 좀 합시다.

결국 상경논총에 실린 "성적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자를 비롯한 비이성애자를 타자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성애자의 시각에서 이성애자를 주체, 동성애자를 타자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런 주체와 타자의 구분 자체가 자신을 중심으로 놓을 수 있는 주체의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여기서 주체인 이성애자는 주체-타자 간의 구분 자체를 없애거나 비이성애자 스스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애초에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자에 대한 분석을 전유하여 타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 담긴 분석과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죠. 특히 62페이지에 실린 이미지의 폭력성은 경악 그 자체죠. 이란에서 동성애자가 공개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것이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폭력을 경험해야 하는 비이성애자들에게 얼마나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필자의 무감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자가 굳이 그 이미지를 써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라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필자가 단지 동성애와 종교 간의 관계를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지를 실은 것이었다면, 이런 폭력적인 이미지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이렇듯 나열된 분석과 이미지들이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이를 갖다 쓰는 것은 타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주체의 성찰 없는 일방적 말하기로 인해 타

자의 목소리는 묻혀 버리고, 타자는 주체의 시선에 의해 걸려진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결국 주체/타자의 구분과 권력관계는 깨지지 않고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관용'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주체로서 타자를 인정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자에 대해 주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이쯤에서 전 필자가 대체 이 글을 쓴 목적이 뭔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나의 생각: 혐오→관용. 우리 모두 톨레랑스 있는 지성인이 되자" 이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던 겁니까. 호모포비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가상했습니다만, 이성애/비이성애 간의 위계를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이 글을 도무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나가며

당신과는 무엇인가 다른 점을 가진 누군가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당신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가진 차이를 문제 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누군가에 대해 갖는 차이 자체가 다짜고짜 문제 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네가 아닌 이상 너와 같지 않은 건 당연한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냐, 열 받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차이를 문제시하진 않더라도 이를 선불리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들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 역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어쩌면 오만에 불과한 일일 지 모르니 말입니다. 윤리 시간인가 언젠가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지속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죠. 이 존중이라는 건 먼저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넌 왜 나와 다르냐'고 묻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갖는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그 차이 자체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규율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 나의 믿음이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 갖는 어떤 권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내가 가진 권력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와, 또 나와는 다른 누군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자세입니다. 알겠?

by 저도 웬만하면 안 싸우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젠 좀 심하잖아요 멀리

호모포비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가상했습니다만, 이성애/비이성애 간의 위계를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이 글을 도무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어쨌거나 신혼은 아스팔트위에 있다.
백년 전쯤엔 여기도 논이고 밭이었겠지 상상해보지만,
신혼은 초록색과 어울리지 않는다.
여름의 신혼에서 떠오르는 건
녹아서 찌든거릴 것같이 뜨거운 아스팔트이고
그 아스팔트의 검정색이다.
그 밑에는 아마 나무뿌리나 두더지는 없을 것이고,
하수도나 지하상가만 가득하겠지.
송도캠은 공사 중이다.
송도의 마지막 갯벌에, 아스팔트를 바르고
송도캠이 올라설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곳은 갯벌이다.
흑갈색 뿔에 발을 담그면 쏠쏠한 활기가 느껴지고,
그 옆으로는 갈매기가 끼룩끼룩 꽃게가 사각사각 지나쳐간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진짜다.
하지만 아스팔트가 부어지면 갯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백년 뒤쯤엔
누구도 이곳이 갯벌이었으리라는 상상조차 못할지도 모른다.



나는 송도캠이 정말로 싫습니다



1. 송도갯벌

대한민국의 갯벌엔 바람 잘 날 없었다.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부터 갯벌은 줄곧 무식한 개발본자들의 타겟이었다. 정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부안 지구를 모티브로 삼고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핑계, 공장지를 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갯벌을 매립해 왔다. 드넓은 갯벌이었던 동진강의 제하도, 충남의 천수만은 논이 되었고, 시화, 안산, 대불은 공업단지가 되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지키려 했던 갯벌마저도 결국 새만금의 이름으로 사라졌다. 원래 바닷가란 울퉁불퉁 고불고불하기 마련인데도, 이대로 모든 걸 매립하다간 해안선이 모두 일직선으로 바뀔지도 모를 정도다.

하지만 이 모든 곳이 매립되는 와중에도, 막상 간척의 정당성이 치열하게 검증받은 적은 없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9시 뉴스에서까지, 갯벌에 대해 우리가 들은 이야기라고는 오직 간척사업 덕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리라는 굳건한 찬사뿐이었다 말이다. 공사장엔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잠깐이나마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고(그 노동자들의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는 못 본체 하고), 갯벌에 시멘트를 투입다 부으니까 공장주도 싱글벙글대는 것 같고(그 시멘트 공장장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도 없는 새 보도블럭에 쳐발리고 있는지는 못 본체 하고), 땅이 생기니까 부동산에서 돈 굴리기에는 딱이며(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도시의 높은 땅값에 밀려 사라져야 한다는 끔찍한 진실마저 뒤로하고), 넓어진 대한민국에 기필코 외국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말리라는 온갖 찬사를.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도 여기 간척지를 더듬돌 삼아 더 큰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굳센 믿음들. 이렇게 국가와 기업이 찢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갯벌은 GDP를 위한 자원으로만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까?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립 이후가 아니라 매립 이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스팔트 위의 땅값보다는 아스팔트 밑에서 죽어야 했을 조개와 갯지렁이를 기억해야 한다. 간척지에 늘어난 공장 굴뚝의 연기보다는 갯벌에 기대어 살다가 순식간에 도시 어딘가로 쫓겨나야 했을 어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매립 이전을 기억하는 작업은 필경 토건주의의 거짓부렁을 까발리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토건주의가 자랑하는 경제발전이란 결국 시멘트공장장과 부동산업자와 정부 뉘으신 분들의 상품을 좀 더 잘 팔리게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우리 대부분의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다. 게다가 매립사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란 갯벌과 더불어 살던 조개와 갯지렁이와 맨손어민들을 죽이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결국 간척사업을 통해 일궈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과 가까이 사는 인간도 파괴하는 과정의 연속일 뿐이었다.

다. 그대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개발이란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진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매립 이전을 끈질기게 기억하려 한다.

지금 송도는 눈에 닿는 모든 곳이 공사 중이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공사만지 때문에 목이 콧막히고, 오물이 치덕치덕 쌓여서 생긴 비린내¹가 코를 찌를 정도이다. 이렇게 주위는 모두 아스팔트로 덮였지만, 송도의 마지막 갯벌은 여전히 씩씩하다. 저어새,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마우지가 해마다 쉬어가고, 동지를 뜬다. 가무락, 고동, 칠게, 갯지렁이가 고물거리고 있다. 50년 넘게 이 갯벌을 오갔던 여성어민들도 물때에 맞춰 가무락을 굶어낸다. 이 모든 아들을 단정히 '갈자'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해보자.



1 검은머리 갈매기
(<http://www.hancutgallery.com>)
2 저어새
(<http://cafe.daum.net/spoonbill-island>)
3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 (별)
4 가무락
(<http://blog.naver.com/ja6011ja/758136>)

어느 것 하나 똑같이 생긴 것 없고, 어느 일초 숨 쉬고 있지 않은 순간도 없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오랜 세월을 등에 새기면서 수천만가지 생물종들이 갯벌에 등지를 틀기 시작했을 것이다. 저 각각 태어나고 죽는 모든 시간을 갯벌에서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갯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존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진 DELETE키를 누를 때처럼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 생명들의 목적인 무게, 미지근한 체온, 울음소리 까지도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마치 티라노사우루스나 맘모스처럼, 송도갯벌의 새와 조개와 어민들은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진 지구가 운석을 맞아서도 아니고 빙하기가 와서도 아니고 오로지 인간의 선택에 의한 멸종이다. 인간이 갯벌의 죽음을 택한 것이다. 작년에는 송도갯벌과 이어진 유수지에 살던 오리 25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갯벌 매립으로 정화되지 못한 공장 오물이 유수지에 들어찬 까닭이었다. 이진 치밀하게 기획된 학살일 뿐, 결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 갯벌이 매립되고 나서, 갯벌을 통한 정화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물들이 쌓이게 되었다더라.

2 송도캠퍼스

Q. 11공구 27만평도 확정된 사항인가요?

송도캠퍼스 발표 당시 1단계로 7공구 28만평과 2단계 11공구 27만평 총 55만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 중 11공구는 취소되었다고 28만평이 전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략)

A. 안녕하세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11공구 매립여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 확정된 사항입니다. 초기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마스터플랜에 11공구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 5, 7 공구 내 연세대학교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11공구 내 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는 없으며, 연세대학교는 11공구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도갯벌의 한가운데 연세대학교 부지가 있다. 현재 5, 7공구³⁾에 강의동이 올라가고 있으며⁴⁾ 마지막 남은 갯벌인 11공구⁵⁾가 매립되면 거기에도 연세대학교가 지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역압적인 터에 자리잡은 이유를 추궁해도, 연세대학교에는 몇 가지 핑계거리가 있다. 첫째로, 송도캠퍼스는 '그린캠퍼스'를 표방하고 있다. 조감도를 보면 송도캠퍼스는 온통 초록색으로 눈이 부실 정도이다. 건물마다 옥상정원이 들어서고, 숲과 함께 어우러진 야구장,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친환경 웰빙 라이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게다가 애초에 송도캠퍼스를 레지던스 스푼으로 건립하는 까닭 중의 하나도 '신촌캠퍼스에 기숙사를 대량 건설할 경우 연세동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⁶⁾기 때문이라 하니 말 다했지 뭐. 하지만 갯벌을 모두 사라지게 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다시 그 위에 인간보기에 좋으라고 식물을 심는 것이 정말로 '그린 캠퍼스'인가? 관상용으로 알맞은 정원, 공원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해서 심은 나무에다가 '그린'을 붙이는 것은 고도의 기만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린'은 옥상정원과 스포츠평원이 사실은 원래 그 땅에 존재했던 갯벌의 죽음 위에 세워진 가장 반생태적인 개발의 한 종류임을 숨기는 이름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하지만 둘째로, 갯벌매립의 책임을 물으면 연세대는 '공식적인 개발주체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다. 서류상으로는 인천시가 매립을 추진한 주체이고 연세대는 단지 인천시의 재안을 받아 매립된 땅에 옮겨온 것일 뿐이다. 처음부터 매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권을 쥐고 있

③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홈페이지(<http://songdo.yonsei.ac.kr>), FAQ, 2009-05-05

④ 5, 7 공구는 재야세가 반식하는 섬의 바로 뒤편이기도 해서, 재야세를 보고 있으면 뒤편에 '계 1강의동'이라고 써붙인 연세대학교 공사장이 같이 보인다.

⑤ 8월초에 송도 '캠머스타운' 앞에서 연세대 공사장을 보았을 때는, 주변에 아무런 건물도 편익시설도 없고 오로지 매립된 모래땅만 있는 넓은 부지에 연세대만 홀로이 지어지고 있었다. 큰 도로를 건너면 아파트단지가 있을 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문화공간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주변에 건물이 올라갈 기미도 없었다.

⑥ 11공구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연상에서 11번째로 계획된 지역이다. 1공구에서 10공구까지의 갯벌은 모두 매립되었거나 매립되는 중이거나 매립되기 직전이지만, 아직 이곳의 갯벌은 살아있다. 칠새들이 먹이를 먹고 어린들도 조개를 캐고 있는 300만평 정도 되는 울도 안 보이는 갯벌이다. 원래는 자연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11공구의 매립은 허가하지 않았으나, 현 정부에 들어서 매립 승인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 중 90만평정도를 칠새 대체식지로 남기고, 나머지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매립 공사가 확정되지는 않은 갯벌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재야세의 먹이터로 밝혀지면서 갯벌 매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갯벌이기도 하다. 관심있는 분은 꼭, 꼭 인천 재야세 대표위크 카페(<http://cafe.daum.net/spoonb-island>)에 들어가보시길.

⑦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홈페이지(<http://songdo.yonsei.ac.kr>), FAQ, 'Q1.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러한 '그린'은 옥상정원과 스포츠평원이 사실은 원래 그 땅에 존재했던
갯벌의 죽을 위에 세워진 가장 반생태적인 개발의 한 종류임을
숨기는 이름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지 않았다고 평계대기에는 딱 좋은 포지션에 서있는 까닭인지, 정말로 연세대는 갯벌에 생
태 파괴를 초래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런 말도 없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회피해버리기에는, 연세대학교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갯벌매립의 강력한 동반자임을 홍보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바로 송도 갯벌
위에 제일 먼저 안착한 학교라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경
제자유구역⁷⁾에 비영리법인인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연세대의 논리는 견고하다. '인천은 우리대학교의 설립자인 Underwood, Allen선교
사님이 19세기 말에 조선에 첫 발을 디딘 곳'이므로 '우리 연세가족 모두가 기도로 준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설립자의 위대한 뜻을 이어 '연세비전 2020의 3대 기본 과
제인 Servant Leadership, Cutting-edge Research, Innovation & Financial Stability
를 구현하기 위해, '아시아의 교육·연구의 허브로 거듭 나기 위해, "앞선 연세, 최고의 대
학"을 실현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필연적으로 송도캠퍼스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말만 보면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전을 감
행한 것 같이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 이곳의 실체는 '송도캠퍼스'가 아니라 '송도국제화복
합단지'이다. 여긴 '학교'가 아니라 '개발구역'이다. 단지 교육만 해서는 자본의 구미에 맞
질 않으니, 경제자유구역의 덕을 보아 국내외 기업과 끈질긴 연을 만들어보겠다는 포부의
내이밍인 것이다. 다시 말해, 송도캠퍼스는 외국기업 가까이에서 터를 잡고 산학협력을 추진
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글로벌한 브랜드가치를 높여려는 웅장한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연세대학교가 내놓은 각종 홍보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송도캠퍼스 홍보브로셔에 따르
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역할>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① 인천지역 발
전에 기여 ②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브로셔의 앞면에는 연세대학교 자신이 인
천시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지부진했던 11공구의 매립이 일사

천리로 진행된 것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 앵커시설 로
서 임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송도에 가면 신입생
이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가 올라오자 '우리 학교 예정부지 옆에는 Posco가 건설하는 60층
짜리 주상복합건물과 국제회의의 관련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151층짜리 쌍둥이
타워(가칭 인천타워)가 건립될 예정이고 2008년 3월에는 1만 6천평 규모의 국제학교가 개교
할 예정입니다.'⁸⁾라며 교육공간이 상업지구의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을 굉장한 확신으로 애
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연세대학교는 갯벌 매립으로 생긴 부동산 이윤을 끌어모았다는 역사
를 굉장히 회기적인 경영방식인 것처럼 자랑하기까지 한다. '송도캠퍼스의 어마어마한 건립
비용이 고작 장기 저리나 기부금으로 충당될 터에 만무하지만, 등록금이 오를 거라고 걱정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비용은 캠퍼스 주변의 주거상업용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충분히 충
당할 수 있습니다.'⁹⁾ 실제로 2008년 4월에,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안의 사
업주체는 인천시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주로 넘어왔다. 송도갯벌매립과 매립지의 개
발 주체가 행정부가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으로 넘어오면서, 공공자본뿐 아니라 민간자본이
결합된 이 특수목적법인이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설립사업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매립결정에 있어서 연세대의 입김은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일들은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내 28만평을 사업부지로 송도국제화복합
단지개발주주에 조성원가에 매각함으로써, 6천500억원에 달하는 주거상업용지 개발이익을
연세대학교에 거의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¹⁰⁾ 이처럼 연세대학교는 갯벌 생명을 파괴하여
얻어낸 부동산 이익을 넘겨 받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송도를 최첨단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계획을 가장 일광적으로 지지한 주체였다.

태초에 교육 상업화가 있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이 야심찬 기획에 몸을 맡겼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경제자유구역의 땅 부스레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주위
먹기 위해선, 개발논리 외의 모든 가치들을 무시하는 게 당연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UIC 이전결정은 단 일주일 만에 이뤄졌고, 배움의 공간이어야 할 학교 안에
주상복합지구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

⑦ 송도는 2003년 국내서 처음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 지역 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는 수년간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이 면제되고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등 자본을 불러오는 외국인 기업을 타겟으로 만들어
친 공간이다.

⑧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홈페이지 <http://songdo.yonsei.ac.kr>

⑨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확산과는 달리 2008년이 지나 2009년이 되어도 1만6천평이라는 국제학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인천타워는 투자자가 없어서 건설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투자자가 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 아
래 무지러지게 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의 0.01% 정도만 투자자본이 들어온 까닭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미미한 주
구장형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⑩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홈페이지 <http://songdo.yonsei.ac.kr>, 게시판에서 검색하여 인용, 2009-07-18

⑪ 연세대 송도캠퍼스 건립 해법 찾기, 연합뉴스, 2008-04-29

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인천시가 내놓은 재학생 이전 조건을 납득 받들어모시느라 학생을 레고블럭처럼 재밌대로 옮겨놓는 것이 이 학교였다. 학생들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보는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인 줄 알았는데, 온통 상업화의 논리로 점철된 캠퍼스에서 국가와 기업이 원하는 효율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또한 이 학교였다. 교육의 공간에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무시하는 교육 상업화의 논리 속에서, 갯벌매립 위에 지어진 캠퍼스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교육이란 24시간 편의점의 상품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배움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맺음이다. 일방이 다른 일방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배움이란 결코 생겨날 수 없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관계에서는 누구도 자신과 상대방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으며, 인간이 다른 자연을 파괴하는 관계에서는 누구든 인간중심적인 시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움의 공간인 학교라면, 그곳은 무작정 개발주의에 찌든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사람이 자라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의 배경과 역사는 모두 학생이 세상을 해석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송도캠퍼스는 그래서 온전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없다. 갯벌을 죽이고 세워진 건물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개발논리에 대한 긍정, 생태파괴에 대한 묵인뿐인 까닭이다.

아직 매립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송도의 마지막 갯벌에 건립하리라는
연세대 건물의 면적을 줄이거나 건립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여
최대한으로 갯벌을 살려둘 수도 있을 테다.

예초부터 송도캠퍼스는 절대로 정당할 수 없는 학교이지만,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갯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연세대학교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몇 가지 있다. 아직 매립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송도의 마지막 갯벌에 건립하리라는 연세대 건물의 면적을 줄이거나 건립 자체를 포기하거나 하여 최대한으로 갯벌을 살려둘 수도 있을 테다. 지금이라도 건설 중에 있는 5,7공구의 건물 높이를 줄여 철새들의 이동경로를 살려두거나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학교에서라면, 난 더 이상 무얼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

by 갯벌은 참말로 고요했어요 파니

퀴어 퍼레이드!!!



퀴어 퍼레이드! 이성애중심사회를 쿵쾅당당 뒤흔드는 퀴어 퍼레이드! LGBTQ의 존재로 필러필러 물결치는 퀴어 퍼레이드!!! 생각만 해도 흥분이 멈추질 않아 이미 머릿속에서는 육색기^①가 차르륵 펼쳐지고, 그래서 웬지 퀴어 퍼레이드가 아니라 '퀴어 퍼레이드!!!'라고 외쳐야만 할 것만 같은 그 퀴어 퍼레이드!!!!

1969년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②을 기념하는 행사로 처음 시작된 퀴어 퍼레이드는 이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팡팡 솟아나오고 있다. 이성애중심사회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숨죽여왔던 퀴어들이 이 날만큼 스스로를 한껏 드러내고 서로의 존재에 파이팅하며 도시 한 복판을 행진한다. 비이성에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을 나누고 싶은 이들, 특정한 성적정체성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이들이 한데 모여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퀴어퍼레이드는 퀴어문화축제^③의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오후, 청

① LGBTQ는 Lesbian(레즈비언, 여성동성애자), Gay(게이, 남성동성애자), Bisexual(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성전환자), Asexual(무성애자), Intersexual(간성), Questioning(자신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이나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는 7개 단어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것이다. (LGBT, 성적소수자사전 http://ksc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2009년 8월 5일 Copyright (C)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에서 일부 발췌)

② 육색기는 비이성에 정체성과 비이성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상징하는 표시 중의 하나이다. 보통 말하는 무지개색의 색깔 중에서 남색을 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③ 스톤월 항쟁은 1969년 미국 뉴욕의 스톤월 인이라는 바에서 경찰들의 차별적인 동성애자 체포에 저항하면서 시작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다. 스톤월 항쟁 이후 적극적으로 비이성에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성애주의에서 억압되어 왔던 인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이어졌다.

제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에겐 올해로 처음 가보는 퀴어 퍼레이드였다.



청계광장에 도착하니, 휘황찬란한 부스들이 한껏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장난감 가게에 간 어린애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둘러보고 싶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신나게 돌아다녔지. 10대 모임 <Rateen>에서는 이성애자 중심으로 그려진 교과서의 삽화나 문구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비이성에 정체성을 차별하라고 가르치는 학교를 조롱했다. 진보신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성애자에게 맞추어진 노동현장에서 커밍아웃조차 할 수 없는 비이성애자들의 '퀴어한 노동권'을 화두로 꺼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약값에 차단되어온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캠페인도 있었다. 대학생모임 <완전텐데>에서 만든 잡지 <변태내일>에는 온통 공감 가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퀴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애'나 '섹스'만을 떠올리고 그것이 퀴어한 삶의 모든 것이리라, 퀴어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행하고 살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여기 모인 부스들이 말하는 것처럼, 퀴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것이며, '노동'에 대한 것이며, '의료'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다니는 '대학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퀴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와 연애하고 섹스할 것인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이성애중심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기획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말이다.

그리고 무대에선 공연이 펼쳐졌다. 그 시작인 드래그^⑤부터 나는 완전히 신나 버렸다. 이성애주의에서 모든 인간의 본연적 특성인 것처럼 강요되는 '여성스러움'이나 '남자다운'은 이곳에서는 쓰고 벗을 수 있는 가면에 불과했으니까, 곧이어 진

⑤ 퀴어문화축제(KQCF, Korea Queer Culture Festival)는 매년 6월 경 열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이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은 퍼레이드, 퀴어 파티, 영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권리와 자긍심을 외친다. 전년도 11월 경부터 자발적으로 지원한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이 꾸려져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 (퀴커미디어) 홈페이지는 <http://www.kqcf.org>

⑥ 남성이 여장을 했을 때는 드래그 퀸, 여성이 남장을 했을 때는 드래그 킹(drag king)이라고 하며 이들의 쇼를 드래그 쇼(drag show)라고 부른다. 드래그쇼는 연예보이기 위해 극장한 여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화장과 가발, 의상, 몸동작 등을 통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를 즐기는 남성이 드래그 퀸인 것이다. 한국 최초의 드래그 전문 바인 '엑시스'를 운영한 적 있는 드래그 퀸 '우기'는 "드래그 쇼란 과장된 메이크업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조급은 과장된 표현을 하는 쇼이다. 반드시 여자처럼 보일 필요는 없으면 자신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드래그 퀸, 성소수자사전 http://ksarc.org/bbs/board.php?id=press_dictionary 2009년 8월 5일 Copyright ©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2-2004에서 일부 발췌)

행된 십대들의 춤 공연은 모두를 열광케했고, 거기다 L-flow의 랩과 G-voice의 노래는 어쩌나 신나던지! 그렇게 재기발랄한 공연을 보고 있자니 어제는 들쭉날쭉 입가는 방실방실 비이성에 정체성을 드러내며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을 처음 본터라 무엇보다 감동적이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퀴어문화축제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다. 올해로 10번째 기획단장을 했다면 한채운이나, 한해 빼고는 매해 퍼레이드에 왔다는 홍석천이나, 무대 밑의 기획단이나 모두의 얼굴에서 퀴어문화축제의 역사가 떠올랐다. 첫째엔 5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퀴어퍼레이드는 이제 천오백여명이 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50이라는 숫자가 1500이라는 숫자로 변화하는 10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는 얼마나 많은 희망을 건졌 올랐을까. 무대 밑에 서있는 나로서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퀴어문화축제 기획단의 표정을 보면서 나까지 행복해졌다.



이웃과 행진을 시작했다. 트럭을 따라 이미 정해진 구간을 빙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나는 무지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 곳은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난 공간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느낌,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존재 하나하나가 새로운 틈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일상에선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드러내고 한판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느낌, 종로 거리를 발라 뒤집어놓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존재가 긍정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든든한 백인 것 같은 자신만만감까지 차올랐다. 해방감을 느껴본 내 인생 최초의 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불안 초조한 마음은 있었다. 그저 있었다고만 하기는 거짓말이고, 사실 해설거리는 얼굴 밑으로는 끊임없이 불안 초조함이 뿜돌았다. 아웃팅^⑦ 당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이다. 실제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아웃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공식 프레스카드를 발급받은 이들만 사진 촬영 및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들에게엔 '사진촬영 거부표시 스티커'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그 스티커를 얼굴이나 뺨에 붙이면, 방송, 신문뿐만 아니라 개인블로그, 카페 등에도 공개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론이든 블로그에든 노



⑦ 아웃팅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비이성에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뜻한다. 현재의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아웃팅을 당할 경우,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 그
전 스티커를 붙인 채로 사진에 찍히거나, 혹시 종로를 걸어나다가 누
굴 마주치거나 하면 더 아웃팅당할 것 같다는 소심한 마음 때문이었다.



촬영금지 스티커를 붙인 채 즐겁게 행진하고 있는 나를 보면, 이성애주의는 분명히
'저 사람은 얼굴이 나오면 찢라는 게 있어서 스티커를 붙였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
은 동성애자일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이런 추측이 섬광같이 머릿속을 휘어잡
았다. 그러나 맨얼굴로 행진하고 있자니 그것도 고역이었다. 프레스카드를 발급받
지도 않은 사방팔방의 행인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흥분된 손짓으로 핸드폰 카메라를
들여댔기 때문이다. 몇몇이 군중들에게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핸드폰과 디카를 들어대는 통에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찍을거라고, 내 사진을 블
로그에 올리지 않을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 행진이 끝나고 다시 종로거리로
돌아오면서는 슬며시 퍼레이드의 흔적을 하나씩 빼어버렸다. 옥색기가 그려진 부채
도 가방에 슬쩍 넣어 버리고, 하트모양의 옥색 뱃지도 가방에 달았다가 누가 의심할
까봐 너무 신경이 쓰여서 결국 지금은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다.

그렇게 축제의 표식을 지우면서 종로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허전
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라고 바보같은 질문을 했더니 친구는 '이성애중심사회로
다시 돌아와서'라고 대답했다. 웃기게도 그 순간에 나는 위안 받는 기분이 되었다.
여기 바로 내 옆에 퍼레이드에 함께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다. 그리고 다음날도 어쩌면 내년 퍼레이드 때도 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겠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축제에서마저 아웃팅의 위험을 느껴야하는 이성애중심사회
가 절망스럽지만, 마냥 혼자 숨막혀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 시궁창을 깨뜨려가
는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였구나.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는 매운 카레를
썩썩 굽어먹었더니 이제 나는 내일도 모레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같이 든든
해졌다.

by 우리 존재 파이팅 스타컬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를 보고 나서^^

2008년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최현숙 후보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여성 동성
애자 후보'로 불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비이성애정책세를 드러내고 국회의원 선거
에 출마한 후보가 없었기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일련의 가
심거리 기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 한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를 준비하
고 수행하고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최현숙 후보 선분에 모인 사람들의 고민들과 활
동, 갈등, 정치들은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레
즈비언 정치 도전기는 그러한 생각 아래 연분홍 치마¹⁾ 활동가들이 함께 선분활동을
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나에게 시작부터 끝난 이후까지 수많은 질문
들과 생각들을 던져주고,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 모든 걸 조목조목 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만, 부족하게나마 너저분히 풀어놔야지.

레즈비언 정치?!

최현숙 선분의 커밍아웃은 단지 한 후보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커밍아웃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떠한 정치인이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과,
어떠한 정치인이 '나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체성을 기반
으로 '레즈비언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어떤 사람이 특
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의 정치가 무엇이라는 판권이 있기도 하
고 없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실 이 영화에서는 최현숙이 '레즈비언'이라는 질문보다

① 〈연분홍치마〉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으로서, 이때의 성적 소수자는 수치의 개념과 다수 대 소수가 아
닌, 성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의 권력구조 -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되어 다중적으로 억압받
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한 성적 소수자는 드러나지 않는 성적 위계질서를 가진 속에서 몰려다니는 존재로, 기
존의 질서에 균열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연분홍치마는 여성주의적 삶을 지향하며, 일상의 경험
과 성적 감수성을 바꾸어 나가는 감수성의 정치를 실천하여, 새로운 성적 문화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출처: 연분
홍치마 공식 블로그 <http://pinkstory.com/>)

그 사람이 '어떠한 레즈비언 이냐, 성소수자운동으로서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전제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본이 하고자 하는 '레즈비언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지금 현재의 선거법이 이성애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비이성애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낀 성본이 선거법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 사회의 현주소일 것이다.) 이성애자만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회는 일상 곳곳에서 비이성애자에 대한 억압이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억압은 끊임없이 비가시화된다. 이러한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주의는 단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연애의 문제만으로 축소되어선 안 되며,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선거법 역시 예외는 아니고, 성본의 헌법소원은 그 이성애주의 권력에 문제제기하는 것이었을 테다. 최현숙 성본의 레즈비언 정치는 이러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총총히 짜여진 사회 전반에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고한 이성애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비이성애정체성을 비가시화시킨다. 동성애자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삶 전반이 흔들리고, 폭력의 위협에 노출받고, 배제당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 내에서 길거리, 팔팔매, 매체 등에서 다양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이성애주의의 균열을 내는 작업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현숙 성본은 집단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게이라고, 성소수자라고 외치는 성본에게 돌아온 것은 '반응없음'이었다. 우스개소리로 성본원들이 말하듯, 태러도 없었다. 학교에서 레즈비언 문화제를 할 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동성애혐오범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니, 기백한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의 행인들은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듣고 눈길만 한번 주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거리에서 나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후보요'라고 외칠 때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이 그 낯선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생각이라도 하고, 와서 질문이라도, 심지어 태러라도 하는 것이었을 테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고 사람들의 일상에 균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지만 옆길을 통해 흘러가는 커밍아웃 발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성애주의는 '동성애자들만의 문제'이고,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성애주의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성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의 문제이지만, 이성애주의는 모든 이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그것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럴수록 일상 속에서 내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성애주의를 드러내며, 그것이 수행하는 권력과 통제, 억압을 드러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비가시화된 이성애주의를 드러내며, 사람들이 고민하게끔 질문을 던져주고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 말이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정도로 시간과 여유가 넉넉하지 않는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기가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럴수록 계속해서 이야기해나가야겠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아아 힘난다

성본은 1000명이 넘는 표를 얻었더라. 오발중에 성본본부에 간식을 사오며 지지자를 표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성본원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곳에서 살던 동성애자들, 인권운동가들, 여성주의자들 등 많은 사람이 성본에 모였다. 참 힘이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관심함으로 일관한 사람들도 있지만, 공감하고 지지하고 뜻을 모아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말이다.

선거 결과 발표날, 1138명의 표를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성본원들이 좋아 떠든 모습이 생각난다. 다른 성본이 1000명의 표를 얻었다면, 그 성본은 실패한 성본이었을 것이고, 우울했을 터이다. 사실 나도 영화를 보면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많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나 의아했었다. 하지만 알 것 같기도 하다. 1138명이 자신들의 활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그 1138명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지지와 공감을 받았을까. 자신들의 활동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어떤 힘을 보태주었을까. 1138명은 수치상으로는 적지만, 한 명 한 명의 삶을 상상해보면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숫자였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은 선거가 모두 끝난 후의 어느 촛불 집회 장면이었다. 촛불 집회에서 최현숙 후보는, 또 성본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은 옥색기를 들고 웃고 있었다. 난 촛불들 사이의 옥색기를 보면서 마음이 풍갈해져 버렸다. 그 성본원들의 고민과 이야기,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또 새롭게 변화해 나가고 있겠지. 아아 그 때, 이성애주의 따위 소멸시켜버리자. 많은 백에 부딪쳐, 힘이 빠지기도 하겠지만, 사람들과 공간과 지지를 나누며 새롭게 솟아나는 힘과 열정으로.

by 도라에몽



<일상, 울림> 이렇게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느새 2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상, 울림>에서는
그간
일상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反! 성폭력

● <등잔 밑에 성폭력, 밝히라 봐야지>라는 주제로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폐되어온데이트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보전을 꾸렸습니다.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25년 전 성폭력 가해자를 찾아나서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곰박하게 정상적인'을 상영했지요. 또한, 권인숙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 문화의 남성성과 남성문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기부장제를 아드작아드작 씹어먹기 위한 사탕을 기념품으로 나눠요.

● 성평등한 여름 농활을 준비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상담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과대에서 농활을 준비하는 농활 주체 여성주체들이 함께 한 이 간담회에서는 농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충남 농민회에서는 연세대 농활대에서 성평등을 기조로써 중요하게 물어내겠다는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평등한 농활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농민학생연대라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현재의 농활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여러 단위의 여성주체, 농주체 및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은 여성인우회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에 관한 간담회를 기획 및 진행했습니다.

● 갯벌과 습지의 생태, 주민들의 생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갯벌 때림 반대', '갯벌 위에 세워지는 송도캠퍼스 반대'를 기조로 송도에서 생태현장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은 20대 비혼 여성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에서 가족, 결혼, 노동이라는 주제로 여성노동과 관련된 소재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소재자는 학내 미화노동자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받는 일상

● 학내 여성주의 활동 및 소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1학기 여성주의 특별지원금을 해당 활동 및 모임에게 분배했습니다.

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 여름방학 여성주의 남살남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주에 걸쳐 남성성, 반성폭력, 색수열리티,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공감의 시간이었어요.

● 매달 화장실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알리며 소통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소식지는 학관, 대강당, 중도 여자화장실에 가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9월에 진행될 제11회 여성제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성평규범을 뒤집어보는 유쾌한 장을 만들고자 열심히 준비 중이에요.

● 총여학생회 홈페이지(web.yonsei.ac.kr/ysfem)의 '지금 총여학생회는'에 들어가시면 매주 총여학생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홈페이지에 오시면 강의평가 게시판에서 여성주의 강의평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성폭력적인 분위기, 성차별적 발언 등이 있었는지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학생 교육권을 외치다!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워크숍을 4화차로 진행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여성으로서 강요받는 조신한 움직임을 벗어나,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 2009년 1학기부터 학교 강의평가에 성평등 관련 항목이 확충되었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면 교수의 성차별, 성폭력적 발언을 마주하게 되지만 기존의 강의평가에서는 성차별/성폭력적인 수업환경에 대해 yes/no로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학교 강의평가에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평등 관련 문항을 확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결과 지난 학기부터 성차별/성폭력적인 수업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성차별적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회관 지하 화장실에 여자 샤워실이 존재하지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자 샤워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잠금장치 및 출입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와 협의하였습니다.



학생회관 3층
왼쪽 문호문
총여학생회실에
언제든 놀러오세요.
페미니즘을 이용하러
오셔도 좋고요.
그냥 이야기하러
오셔도 좋아요



송도 갯벌과의 만남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의 송도갯벌생태 활동기



01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시작되었다. 몇 주 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축전의 봉사단을 모집하는 팝업창이 났었고, 지금은 TV에서는 온통 글로벌한 미래도시에 대한 찬사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는 축전이 열리는 송도국제도시에 '첨단 국제 교육' 등의 수식어가 붙는 연세대학교의 송도 캠퍼스가 개교하여 장차 글로벌 리더가 될 학생들이 이 동해 갈 것이다. 정말 눈이 돌아갈 만큼 화려한 말들이 아닌가 싶다.

02 변혁이는 선전의 내용과는 어긋나게도 지금 학내에서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제학부 이전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 학생을 '캠퍼스가 아니라 국제복합단지'라는 송도캠퍼스의 개교의 재료로만 생각하고 있고, 재원마련을 위해 상업화되어가는 학교에 분노하면서 무언가 하나 놓친듯 찡찡 했었다. 송도캠퍼스 문제에는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발전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의 생활터전과 수많은 생명체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면서 생긴 캠퍼스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03 에코페미니즘팀에서 송도캠퍼스 문제를 학교와 학생의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횡포라는 개발의 인간중심성의 차원에서 성찰하고자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좋아하는 우리 열정넘치는 에코페미니즘 송도갯벌생태활동을 가

로 결정하였고 방학 시작부터 준비하였다. 송도갯벌에 사는 새들의 영상을 보며 다른 생명체와 단절되어 있던 사고를 조금은 깨고, 개발에 희생된 사람들과 생태적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바쁜 준비과정이었다. 그러한 준비과정은 발전이데올로기에 무의식적으로 수궁하도록 만든 개발과 콘크리트에 익숙해진 나의 생활환경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04 동막역에서 내려 남동유수지 옆에 있는 저어새네트워크의 천막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새들을 사랑하여 매일 새들을 모니터링하러 돌아다니는 활기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함께 다니면서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백로, 도요새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저어새는 술가락처럼 생긴 부리로 물속을 저어저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0.0 이 저어새는 콘크리트 더미와 공사장의 먼지로 둘러싸인 남동유수지에서 동지를 만들 재료가 없어 폐기된 그물까지 가져다 쓰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매립되어버린 송도갯벌 중 마지막 남은 11공구지역 갯벌에서 먹이를 찾아 이 남동유수지로 오는 것이었다. 원래는 넓은 갯벌이었을 텐데... 이젠 구석에 조그맣게 남은 11공구지역에 2000여 마리가 넘는 새들이 있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곧 있으면 이 11공구마저 매립되어 새들은 갈 곳이 없어질 것이었다.

05 물론 자칭 '녹색성장' '친환경 개발'이라는 송도국제도시로서는 이런 새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11공구지역을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시작되었던 송도갯벌매립이 이제는 11공구의 3분의 1을 남겨 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매립이 결정되었다. 다른 공구들을 매립한 덕분에 열악한 조건과 좁은 갯벌위에 모여 있던 새들이 이제는 더욱 갈 곳이 없어졌지만 개발주체들은 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송도국제도시의 빌딩에는 국제 철새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고, 인천 지하철 곳곳의 영상물에서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환경포럼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말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전광판에 명멸하는 화려한 영상에서는 청청한 소나무들과 맑은 냇물이 흐르는 신도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갯벌 위에 소나무와 맑은 냇물은 인공적이다 못해 기괴한데도 친환경적이라니 말이다.





이렇게 갯벌의 생명체와 그 생명들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삶을 꾸려나갔던 공동체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07 반나절 동안 직접 갯벌의 흙을 만지고, 갯지렁이와 조개, 갈매기의 발자국 등을 보면서 그 동안 내가 정말 갯벌을 모르고 있었다는 깨달았다. 갯벌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과는 먼 곳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도 말이다. 항상 대체와 책에서 거르고 걸러진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들만이 내 자료의 전부였는데,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이 무서워졌다. '자연의 소중함'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자연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콘크리트 위의 인공 냇물과 갯벌위의 소나무 같은 것은 아닐까?

08 송도갯벌생태활동(가칭)에서 새들을 보고, 여러 활동가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전전도 하고, 직접 갯벌에 들어가는 등의 알차고 부지런한 이바지 활동을 보냈다. 학교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송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지만, 대다수의 생각은 실제 송도라는 땅에는 오지 못한 듯하다. 우리 에코캠핑이 생태활동을 준비하고 고민한 과정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민의 끈이 닿는 지점은 의외로 많을 수 있으며 기회도 많다고 말하고 싶다. 인천세계도시축전에 가보면서 갯벌을 직접볼 수도 있고, 송도캠핑스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함께 그곳에 사는 새들의 모습도 함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잊기 쉬울 뿐이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익숙해졌을 뿐. 멀고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by 윤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 활동수기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을 5월부터 같이 하였다. 일주일에 한번 회의 및 세미나를 하고 서로의 생활나눔을 하는 등 쉬엄쉬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보니 얼마 느낀 것이 많았다.

처음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을 함께 하자고 제안 받았을 때, 사실은 뭐든지 의욕이 앞서서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마음에 넘쳐 받았다. 여성노동을 고민해야지만 생각과는 좀 달랐다. 이런 필리는 구석 때문에 여성노동이 될까 꼭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처럼 책을 보기도 하고 논문을 보기도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책과 논문에서 나오는 여성노동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여성', '노동'과 같이 큰 범주의 것들을 통째로 묶어버려 생각하고는 나오는 점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인 것 같다.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접했던 여성노동은 신자유주의 시장아래 여성노동의 변화,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또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같은 전체 구조와 그 속의 여성노동의 내용이었다. 사실 일도 안하고 주변에 일하는 친구 하나 없는 나로서는 수십 년, 수만 명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나의 일로 느끼기란 쉽지 않다. 나는 여성이니까, '일'으로 노동을 할 테니까, '이것들'에 뭔가 포함되었는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면 볼수록 더 맞지 않을 뿐이었다. 또 일노동만 전체 노동이라고 여기며 생각했던 것도 큰 한이었던 것 같다. 일상에서 느껴야 했던 감정노동, 또 그것이 일노동으로 이어지는 것들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임금, 어떤 작업환경에 처하느냐를 가지고 그 노동의 성격을 지으려 했다.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느낀 것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한 것이 이따간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 함께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일을 할 때 여성인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니 한결 편해졌다. 여럿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실제 일들이 재발되었다. 통째로 묶어서 수학의 변수 하나만 보아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흔한 일인데 내가 보지 못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노동을 고민하는 팀은 내게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주었다. 토론의 기회, 고민의 기회, 학습의 기회이다. 무작정 책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가며 여성노동이 무엇인지라기 보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생각이 들고를 서로 나누다 보면 더 궁금한 것들도 생기고 궁금하던 것이 풀리기도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생긴 의문점을 계속 고민하다보면 다른 생각에 도달하게도 해주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도 해주었다. 이것들을 그냥 어렴풋이 흘러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 무엇이 원인이고자세하는 일지 못하지만) 무엇이냐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좋은 것은 여성노동을 통해 가족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사에 다니는 엄마와 집안일을 하는 엄마, 외할머니, 할머니, 요즘에는 부쩍 집안일을 하시는 아버지까지 전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방치하고 남가족에게 미룬 일도 내손으로 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게으른 탓에 완벽하지는 못하다.) 아쉬운 것은 세미나가 꾸준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었다. 좀 더 열심히 참여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다. 물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짐하듯이 아쉬움을 마지막에 적어본다.

by 윤



2009
여름방학
여성주의
세미나 후기

넘실넘실 오고가는 용기

막상 세미나에 대해서 말하려면 무얼 말해야 할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1주차에는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 했고 2주차에는 이성폭력에 대해서, 3주차에는 여성 섹슈얼리티/몸/육체에 대해서, 4주차에는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의 주제 주제 마다 정말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행간과 엄청난 내용과 엄청난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만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핵심을 완전히 소화했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막 뒤집기를 시도한 유아에 불과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결국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 주변머리부터 얘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선 저는 이것이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각자의 배경이 높아지려 하는 엘트르보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한 전공 시간의 외부강사 강의가 이번 세미나를 듣게 한 최고의 동인이었는데, 당시의 저는 어딘가 안달이 나 있었고 제 삶과 전공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돼서 난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걸까, 분명 의문이었지만서도 또 동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수업도 듣고 봉사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과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틈틈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책장 넘기듯 평범했고 남 보기엔 심지어 좋습니다.

외부강사님은 사회학과 소속이셨고 페미니스트셨습니다. 저는 원래 타전공의 외부강사 강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공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해 생기는 간극이 지꾸 거슬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간극이 분명 존재하긴 했는데 그 간극이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서를 주었습니다. 제가, 어딘가 화가 났지만 전공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했던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 여성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속해있다는 것 등이 특히 그런 생각을 듣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 결국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으로서 미미하게나마 여성주의의 개념을 알아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세미나를 마친 지금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한 것이라 여성이 대체 무엇인지 나와 재와 애가 생각하는 여성이 과연 각자 무슨 여성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아주아주아이아이아이아이아주 거칠게 말하는 일반적 통념에 의해서 작성

된 문장입니다.)



처음엔 총여학생회실의 핑크빛 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상 좀 알아보
려 해도 여성주의에 대해서 손톱조각만큼도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다 결국 학생이 가
장 쉽게 도움을 손길줄 뻔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학교 안이기 마련이라서 총여학생
회(이하 총여)를 찾아가기는 했지만 - 음, 핑크빛 문 앞에서 경장히 망설였던 기억
이 나네요. 핑크빛 배경에 자주색 투사(?)들이 그려진 문은 거의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다 웬지 안 열려있을 것도 같고, 그럼 쿵쿵쿵쿵 멀쩡멀쩡 해봐야 할 것
도 같고, 혹시 열린다고 해도 열면 끼이익 큰 소리가 날 것 같고 그럼 웬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것 같고 그런 나는 웬지 총여에 엄청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

고 그럼 나는 이유도 없이 수줍을 것 같고 웬지 힘들 것도 같고- 과거 여성제 때 레즈비언 관련 전시를 보면서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친구와 싸웠던 것, 총학이 총여를 없앤다고 했을 때 총여의 존재이유에 대해 역차별이냐 아니냐, 친구와 설전을 벌였던 것 등 등 이것저것이 떠오르면서 괜히 총여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박해 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도 같고 - 예, 혼자 정말 별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어려움은 왜 불편한 것인가 어렵듯이 알 것 같기도 하지만요. (사실이 기네요, 그렇지만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서 이렇게 줄줄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핑크빛 문을 열었고(생각보다 뻑뻑하지도 않고 소리도 크게 안 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말했고 매우 반가워해 주시는 총여분들에게 번호를 주었고 몇 주 후 연락이 왔고 커리를 샀고 - 두구두구두구! 마침내! 2009 여류문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총여학생회실 앞에서 이루어졌고 커리를 미리 읽어오고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의 첫 부분에서 저는 '엄청난'을 라임rhyme삼고 세미나를 뭔가 대단하고 아주 어려운 것인 양 말했는데요, 물론 세미나 주제 하나하나와 그에 대한 실재나의 경험을 재해석 하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게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엄청난' 이니 '의미'니 하는 그런 무거운 단어들의 조합과는 웬지 어울리지 않게 세미나 분위기는 어딘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첫 주에, 시작에 앞서 학변과 학과는 빼고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각자가 불리고 싶은 이름과 좋아하는 것들을 말했고 그 후 모두가 존대를 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게는 그 부분이 편안함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총여실 역시 분명 학교 안이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처음에 있어 학변과 학과가 빠지고 나니 여타 학교 안에서 만나는 혹은 학생의 신분으로 맺는 인간관계와는 사뭇 다른 질서 속에서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과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나이에 따른 역할기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나의 첫 이미지는 내가 스스로 정한 이름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구성되어졌고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처음 인사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정도로 이



해되었고 존대 속에서 거의 같은 정도로 존중받았습니다. 뭔가 뒷사람으로서 잘해나가야 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 저로서는 나를 자유로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지요.

물론 각 주제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학과 얘기도 하고 나이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과 제 개인적인 실천의 문제로 오면 문제는 정말 어려워져서 맘은 어지러워지고 이걸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멀었구나, 답답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가까운 공간에서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진지한 건가, 내가 어딘가 피해의식이 있는 건가, 내 탓을 하고 고민을 했던 많은 부분들이 세미나 안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해석되었고 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수는 없지만 분명 나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생각을 다시 정제해나가는 과정은 굉장하... 음... 네... 분명 언어화 하지 않으면 잘 인식되지 않는 법인데 언어화 해버리면 작아지는 것만 같네요.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머무르는 가까운 곳에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총여에 발을 담기가 웬지 무서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박해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전혀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어요, 당연한 것이지 했던 것들이 복잡해 질 수 있어요,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커리를 읽는 것도 제법 공부였지만 아직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답답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미하니까, 여전히 실천은 어려우니까. 이번 세미나는 지금은 주변머리만 끄적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핵심을 낚아채 보겠다는 용기를 주었네요. 안달나고 답답하고 모르겠다는 당신에게 이 용기를 바칩니다. 화이팅!

by 나무



여성학 지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방해받지 않은 채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아온 여성주의 저작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뭘까? 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체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서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답론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세밀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내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 있습니다. 책꽂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자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대어목록에 도서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관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ysfem>)에 올라와 있는 페미니리 도서목록 파일을 보고 전화로 요청하시면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학생회관 압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여성주의에서 여러분만의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페미니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주의 책을 골라 읽고 난 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서평을 woolim@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서평은 '총추는 입술' 다음 호에 실리게 됩니다. 글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총여학생회에서 제작한 예쁜 텀블러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www.tedolus.com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2009년 10월 30일까지

신청 및 문의 woolim@yonsei.ac.kr / 02)2123-3645

<http://web.yonsei.ac.kr/ysfem>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은 학내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 모임 및 여학생 모임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모임의 성격,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학내 여성주의, 여학생 소모임에서 여성주의 세미나, 매체발행, 여성주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책슈얼리티, 젠더,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단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ysfe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거나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앞에 놓여진 신청서를 가져가신 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계단 사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신청서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영수증은 스캔해서 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보내시거나 총여학생회실에 직접 오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입상, 울림>

두근두근 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나의 행동들이 모두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럽다고 판단되는 게 짜증나시나요?

왜 어떤 행동은 여성적인 것이 되고 어떤 행동은 남성적인 것이 되는 걸까요? 왜 애초부터 여성과 남성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여자인데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왜 난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성과 젠더에 관한 물음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물음과 고민들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짜인 듯한 성별이분법적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남성을 욕망하는 여성적인 여성과 여성을 욕망하는 남성적인 남성 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갑갑한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과 욕망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성을 드러내고, 원래(생물학적으로~)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런 거야~ 라는 짜증나는 소리를 뒤엎는 축제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옥죄어오는 이성애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문화제 이번 9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 11회 여성제가 열린답니다. 3일 동안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양한 의미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X의 이야기를 담아 전시를 진행하고요, 저녁에는 영화, 강연,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셋째 주 즈음에는 예쁜 여성제 물랑이 학내에 남실거리고 있을 거예요. 갑갑했던 일상을 벗어나 나의 다양한 욕망들을 발견하는 해방적인 이 축제, 모두 함께 즐겨요!



16일 WED 오후 6시 30분 백양관 강당

영화 : <3xFTM> 한국, 2008

3명의 FTM(Female T Male, 성전환 남성)이 들려주는 "T" - toward 혹은 transition 혹은 to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그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각자의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한다.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17일 THU 오후 6시 30분 논지당

강연 : <당신의 젠더를 의심하라>

연사 : **한채운** 『섹슈얼리티의 두 번째 중 박정배우기』, 『이성주의 학교 간다』 중 『이성주의 인스턴트, 섹슈얼리티-자기결정의 철학』 저자

이성애주의와 젠더규범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고 있을까? 나의 젠더는 정말 고정불변의 것일까? 어쩌면 젠더는, 위장과 흥내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젠더를 의심해보는 시간!

18일 FRI 오후 6시 노천극장 제2연습실

워크숍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라고 말 아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신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자리 (변경 가능)

관심 있으시면 woolim@yonsei.ac.kr로 문의 및 참여 신청 해주세요! 불리고 싶은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성제 기간 내내 : 중도 앞 전시

오전 10시~저녁 6시,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시를 보러 오세요! X가 살기 힘든 지금 이 세상의 참혹한 제각들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참혹한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틈을 내서 X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페너지를 업!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시간 및 장소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